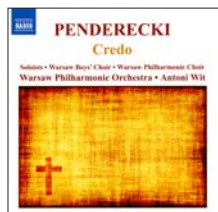


8.572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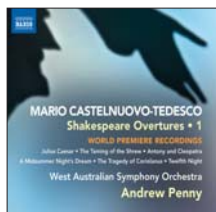
피아졸라:
신포니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반도네온 협주곡 외
다니엘 비네이(bandoneon)
티안와 양(vn)/ 잔카를로 게레로
내시빌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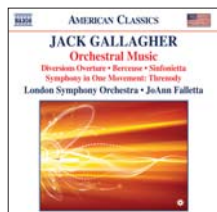
8.572032
펜데레츠키:
크레도, 칸타타
여러 가수들
바르샤바 소년합창단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8.572186
스텐함마르:
세레나데, 전주곡과 부레,
이타카 외
카를 마그누스 프레데리손(br)
한누 코이볼라
예틀레 심포니



8.572500
카스텔누오보-데데스코:
셰익스피어 서곡집 Vol.1
앤드류 페니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심
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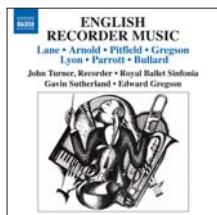
8.559652
갤러거:
신포니아에타, 단악장교향곡,
자장가, 유희 서곡
조안 팔레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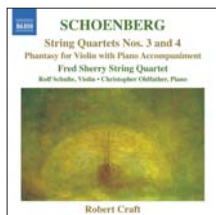
8.559656
츠윌리치:
밀레니움 판타지, 이미지,
피넛츠(스누피) 갤러리
제프리 비겔, 리드 개인소프드(pf)
알렉산더 히메네스
플로리다 주립대 교향악단



8.572651-52 [2CDs]
수자:
유명행진곡 모음집
키스 브라이언
로열 아틸러리 밴드



8.572503
영국 현대 리코더 작품집
존 터너(recoder)
개빈 서덜랜드
로알 발레 신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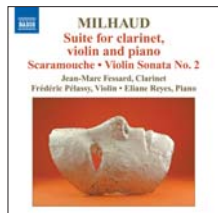
8.557533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3,4번, 판타지
프레드 세리 퀴텟
롤프 솔트(vn)
웅재 오닐(va)
크리스토퍼 올드파더(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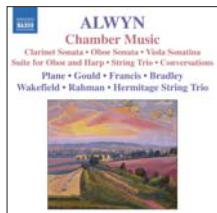
8.559630
피스톤:
현악사중주 1,3,5번
할렘 퀴텟



8.559666
코츠:
현악사중주 9번, 무반주 바
이올린소나타, 서정모음곡
크로이처 퀴텟
로데릭 채드윅(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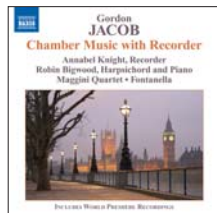
8.572278
미요:
모음곡, 스카라무슈, 바이올린 소
나타 2번, 클라리넷소나타 외
장 마르크 페사르(ci)
프레데릭 펠라시(vn)
엘리안 레예스(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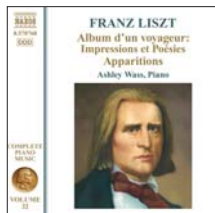
8.572425
올윈:
클라리넷소나타, 오보에소나타,
비올라소나타, 현악트리오 외
로버트 플레인(ci)
사라 프란시스(ob)
사라 제인 브래들리(va)
소피아 라만(pf) 외



8.572497
아일랜드:
바이올린소나타 1,2번,
첼로소나타
루시 골드(vn)
앨리스 니어리(vc)
벤저민 프리스(pf)



8.572364
제이콥:
리코더를 위한 실내악 작
품집
애너벨 나이트(recorder)
마기니 퀴텟
로빈 빅우드(pf) 외



8.570768
리스트:
여행가의 앨범 중 인상과
시, 환상들
애슐리 워스(pf)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5호 | September 2010

* Hot Issue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오페라 하우스 명연시리즈
Opus Arte의 블루레이(Blu-ray) 샘플러 2집

** Cover Story

세상을 바꾸는 음악 엘 시스템아

세상을 바꾸는 음악, 희망을 연주하는 아이들 ‘엘 시스템아’

베네수엘라 헌법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국민은 음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한 ‘엘 시스템아’의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가난과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회운동은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그 사회운동의 핵심은 가난과 범죄의 고리를 영원히 끊을 수 있는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음악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확인시켜준 ‘엘 시스템아’는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운동이다. ‘엘 시스템아’를 통해서 우리는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임을 보았다. 또한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운명과 싸울 가장 아름다운 무기를 갖는 것’을 뜻한다는 것도 알았다. ‘희망과 기적’이라는 이름의 악보를 연주하는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예술적 혁명, 가장 아름다운 혁명이다.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운명과 싸울 가장 아름다운 무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라 – 사이먼 래플
음악,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 클라우디오 아바도

‘엘 시스템아’의 역사

1975년,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에 11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어린 나이에 이미 전과 5범이 된 소년도 있었다. 빈민가의 낡은 차고에 모인 그들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의 지도 아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엘 시스템아’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이며 사회운동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구상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린 아이들이 가난과 범죄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나라. 아브레우 박사는 ‘한 끼의 밥’이 아니라 ‘희망’을 어린 영혼에 심어주어야만 가난과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세월 방치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무기는 음악. 아브레우 박사의 믿음대로 음악은 어린 영혼들



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었고, 희망을 일깨워주었다. 운명과 싸울 가장 아름다운 무기인 ‘음악’을 배우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아브레우 박사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35년이 지난 지금 ‘엘 시스템아’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엘 시스템아’가 증명한 것이다.

‘엘 시스템아’ – 그 특별한 시스템

‘엘 시스템아’의 목적은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통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난과 범죄와의 고리

를 끊는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 ‘엘 시스템아’의 진정한 목표다. 희망 없이 거리를 배회하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엘 시스템아’가 배출한 뛰어난 음악가들도 많다. LA 필하모닉의 젊은 음악감독으로 화제를 모은 ‘구스타보 두다멜’은 ‘엘 시스템아’의 최대 수혜자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에릭슨 루이스를 비롯해서 호엔 바스케스, L. 미겔 로하스, 에드워드 풀가르, 나탈리아 루이스 바사 등의 걸출한 연주자들도 배출했다. 하지만 ‘엘 시스템아’가 추구하는 것은 예술로서 음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무기로서 음악을 다루는 것이다. 아주 어린 아기들은 종이 악기로 음악과 처음 만난다. 악기를 연주하는 대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조화’를 배운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교육도 마련되어 있다.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보듬는 것이 ‘엘 시스템아’다. ‘엘 시스템아’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운동이다. 한 어린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엘 시스템아’가 추구하는 것이다. 단지 악기를 배우고 연주했을 뿐이지만, 희망 없이 살아가던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엘 시스템아’가 보여준 진정한 기적이다. 그 기적을 경험한 아이들이 훗날 선생님이 되어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모습은 ‘엘 시스템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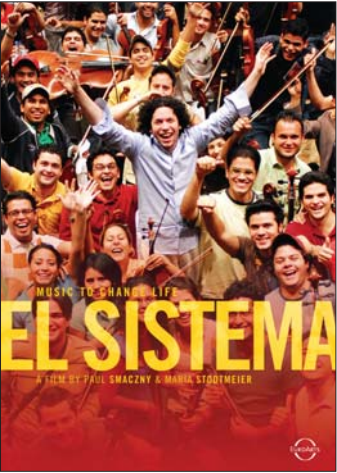
‘엘 시스템아’는 어쩌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이 아닐까?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도 아니고, 위대한 음악가를 기르려는 음악교육 시스템도 아니다. 오직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기적을 나누어주며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확대재생산하는 놀라운 시스템이다. ‘Play and Fight!’, ‘마음껏 희망하라’ – 운명에 맞서 총 대신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혁명’을 이룬 사람들의 구호가 너무 멋지지 않은가! 자, 당신도 마음껏 희망하라!

우리에게도 ‘엘 시스템아’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아름답다. 21세기에는 더욱 필요한 정신이다. ‘엘 시스템아’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백 사람의 천 걸음으로 확산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그 ‘시스템’, ‘엘 시스템아’의 열풍이 한국에도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우리에게도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온도의 상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영혼의 온도’이고,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시스템의 온도’다. 앞서 가는 사람들을 행기며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였다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며 희망의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음악을 통한 희망과 기적’을 준비해야 할 때다. 모두가 함께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모두 함께 꾸는 꿈을 위해, 지금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희망의 사다리를 놓고 한 계단씩 올라서야 할 때다. ‘엘 시스템아’가 낳은 최고의 스타 ‘구스타보 두다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엘 시스템아에서 배운 것은 음악을 통한 성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이 장엄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한 소년의 말처럼 이제 우리도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코끼리처럼 큰 걸음을 천천히 내딛어야 할 때다. ‘엘 시스템아’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말했다. ‘음악은 역경을 희망으로 바꾼다.’ 그렇다. 음악은 힘이 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 마음껏 연주하고 마음껏 희망하라!

호세 아브레우 박사의 〈서울평화상〉 수상 ***

‘엘 시스템아’ 출신들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며, ‘영혼을 키운 사람’이다. 황무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바위섬에 꽃을 심기 시작한 사람처럼, 어린 영혼들에게 음악을 심기 시작한 사람이다. “가난한 집의 한 아이가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이 변하기 시작한다.” 호세 아브레우 박사의 신념은 투철하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불길은 들불처럼 번져서 전 세계를 음악적 열정과 기적으로 타고르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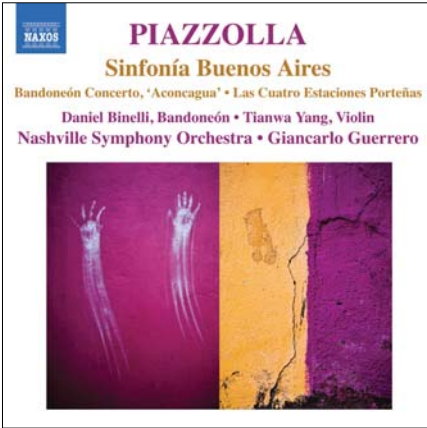


ADVD-012
EL SISTEMA(엘 시스템아)



Naxos

www.naxos.com



8.572271
피아졸라:
신포니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반도네온합주곡 외
다니엘 비네이(bandoneon)/ 티안와 양(vn)
잔카를로 게레로/ 내시빌 심포니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클래식의 반열에 당당하게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본 신보는 그의 작품들 중 가장 클래식한 세 작품을 담았다. 탱고를 소재로 만든 교향곡 풍의 대작인 신포니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반도네온합주곡인 '아종가 구아' 역시 정통적인 협주곡 양식을 빌렸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역시 바이올린과 현악합주를 위한 데산트니코프의 클래식한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8.572032
펜데레츠키:
크레도, 칸타타
여러 가수들/ 바르샤바 소년합창단/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펜데레츠키는 다섯 미사 통상문 중 가운데 부분인 '크레도'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방대한 규모의 종교합창곡을 완성하였다. 전통적인 조성음악체계를 이용한 네오-로만틱 스타일의 작품으로 작곡가의 작품 중 가장 색채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함께 수록된 칸타타는 크라코프 인근의 야젤로니안 대학의 설립 6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리게티 풍의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완성한 소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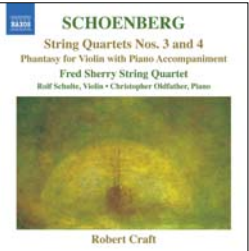
8.572186
스텐함마르:
세레나데, 전주곡과 부레, 이타카 외
카를 마그누스 프레드리克森(br)/한누 코이볼라/ 예블레 심포니

관현악을 위한 세레나데는 스텐함마르의 관현악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기작으로, 북극의 여름을 특징 짓는 백야의 이미지를 매력적인 음악으로 표현해낸 걸작이다. 작곡가의 두 주요 관현악 반주 성악곡인 '플로레스와 불란체포르로', '이타카'와 함께, 최근 재발견되어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뛰어난 선율미의 관현악작품인 '전주곡과 부레'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503
영국 현대 리코더 작품집
존 터너(recoder)
개빈 서덜랜드
로알 발레 신포니아

리코더를 위한 작품이라면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옛 음악들을 떠올리지만, 20세기 영국의 여러 작곡가들도 이 매력적인 악기를 위해 다양한 개성의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필립 레인의 북고풍 작품인 옛 모음곡 외에도 영국의 민속 춤곡들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토마스 피트필드, 안패럿, 에드워드 그렉스 등의 감각적인 협주곡 풍의 작품들을 통해 리코더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8.557533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3,4번, 판타지
프레드 세리 퀴텟
로프 솔트(vn)
옹재 오닐(va)
크리스토퍼 올드파더(pf)

쇤베르크의 마지막 두 현악사중주는 주제와 변주, 소나타, 론도, 미뉴에트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 속에 무조음악의 세계를 담은 작품들이다. 미국의 저명한 첼리스트 프레드 세리의 이름으로 모인 현악사중주단에는 제니퍼 프라우츠키, 레일라 조세포비츠, 옹재 오닐 등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바이올린의 초절기교를 필요로 하는 판타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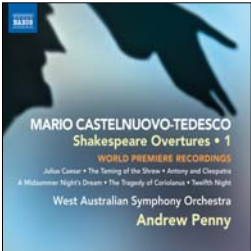
8.559630
피스톤:
현악사중주 1,3,5번
할렘 퀴텟

8곡의 교향곡을 완성한 미국의 대표적인 심포니스트였던 월터 피스톤은 다섯 편의 준수한 현악사중주들도 완성하였다. 본 신보에는 신고전주의 성향의 작품인 1번, 통렬한 리듬과 격양된 선율을 담은 3번, 에너지 넘치는 작품인 5번의 세 작품이 수록되었다. 유색인종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핑크스 콩쿠르의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 조직한 할렘 현악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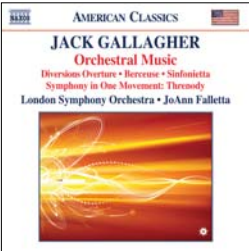
8.559666
코츠:
현악사중주 9번,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서정모음곡
로데릭 채드윅(pf)

자신만의 개성적인 작품세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글로리아 코츠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여류작곡가다. 현악사중주 9번은 클리산도와 미분음을 활용한 몽환적인 소노리티가 인상적인 작품이며,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는 멀티플 스토폍을 위시한 고도의 연주기교를 요구하는 난곡이다. 에밀리 딕킨슨의 시를 인용한 서정 모음곡은 다양한 화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8.572500
카스텔누오보-데데스코:
셰익스피어 서곡집 Vol.1
앤드류 페니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마리오 카스텔누오보-데데스코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에서 영감을 얻은 11편의 연주회용 서곡들을 완성하였다. 낙소스는 이들 전곡을 2장의 CD로 나누어 발매할 예정이다. 첫 음반에는 '줄리오 체사레', '말괄량이 길들이기',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한여름밤의 꿈', '코리올라누스의 비극', '120f' 등의 여섯 작품을 수록하였다.



8.559652
갤러거:
신포니에타, 단악장교향곡, 자장가, 유희 서곡
조안 팔레타

현재 우스터 음대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잭 갤러거의 대표 관현악 작품들 모은 음반. 단악장 교향곡은 초연 당시 화려한 색채로 가득찬 작품이라는 호평을 얻은 작품이다. 사랑스런 멜로디를 담은 서정적인 작품인 자장가와 남미의 열정을 담은 말랑보 악장이 인상적인 신포니에타, 그리고 활기찬 유희 서곡 등을 여러 지휘자 조안 팔레타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강력한 연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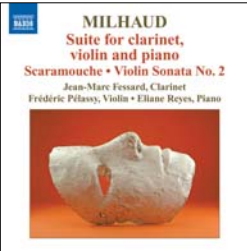
8.559656
츠윌리치:
밀레니움 판타지, 이미지, 피넛 초(스누피) 갤러리
제프리 비겔, 리드 개인스포드(pf)/ 알렉산더 히메네스/플로리다 주립대 교향악단

폴리처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작곡가인 츠윌리치의 피아노협주곡 풍의 작품 3편을 수록하였다. '밀레니움 판타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소박한 민요에 기초한 작품이다. '이미지'는 다섯 점의 여류 화가들의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찰스 슐츠의 인기 만화를 소재로 만든 '피넛 초 갤러리'에는 스누피, 슈뢰더, 라이너스, 찰리 브라운, 루시 등의 친근한 캐릭터들이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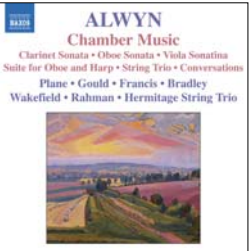
8.572651-52 [2CDs]
수자:
유명행진곡 모음집
키스 브라이언

행진곡의 왕' 존 필립 수자의 대표 행진곡들을 엄선한 음반. 기존 아메리칸 클래식 시리즈로 발매되었던 8장의 수자 음반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34편의 행진곡을 두 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자유'의 중', '성조기여 영원히', '워싱턴 포스트', '양키 해군의 영광', '무적의 독수리', '피카도르 마치', '미네소타 마치' 등의 귀에 익은 행진곡들을 키스 브라이언이 지휘하는 영국 왕립 포병 군악대의 씩씩한 연주로 만난다.



8.572278
미요:
모음곡, 스카라무슈, 바이올린 소나타 2번, 클라리넷 소나타 외
장 마르크 페사르(c)/ 프레데릭 펠라시(vn)/ 엘리안 레예스(pf)

프랑스 5인조의 한 사람인 미요는 영화와 무대 음악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은 연극 '여행자'를 위한 극부수음악에서 발췌한 작품이다. '스카라무슈' 역시 몰리에르의 '날아다니는 의사'에 기초한 연극을 위한 음악이다. 보다 정통적인 형식의 실내악인 바이올린 소나타 2번과 클라리넷 소나타 2번을 함께 수록되었다.



8.572425
올윈:
클라리넷 소나타, 오보에 소나타, 비올라 소나타, 현악트리오 외
로버트 플레인(c)/ 사라 프란시스(ob)/ 사라 제인 브래들리(va)/ 소피아 래만(pf) 외

윌리엄 올윈은 5편의 교향곡들과 다양한 독주악기를 위한 5편의 협주곡, 그리고 실내악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에는 간결한 선율 중심의 초기작품들인 오보에 소나타, 비올라 소나타,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모음곡에서부터 보다 어두운 색조의 음악스타일을 보여주는 클라리넷 소나타, 현악트리오, 클라리넷과 대하 등의 중기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2331
피아졸라:
피아노로 연주하는 피아졸라의 베스트 탱고들
아킬레스 데예-비네(pf)

피아졸라의 탱고는 어떤 악기로 연주하더라도 그 독특한 매력을 고스란히 유지한다. 본 신보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데예-비네가 직접 피아노 독주를 위해 편곡한 피아졸라의 탱고 대표작들이 수록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천사 3부작 (천사의 밀풍가, 천사의 죽음, 천사의 부활), '안녕 파리', '피카소', '안녕 노니노', '일방통행',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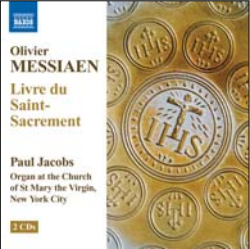
8.572497
아일랜드:
바이올린소나타 1,2번, 첼로소나타
루시 굴드(vn)/ 엘리시 니어리
(vc)/ 벤저민 프리스(pf)
아일랜드의 두 바이올린소나타
들은 초연 당시부터 영국 음악평
론계의 극찬을 받았던 작품들이
다. 1번은 섬세하고도 명료하며,
음악적으로 매혹적인 작품으로,
2번은 작곡가의 훌륭한 창조력
에 대한 멋진 표본으로 칭찬받았
다. 강렬한 감성과 열정적인 서
정성을 겸비한 작곡가의 가장 뛰
어난 실내악의 하나로 손꼽히는
첼로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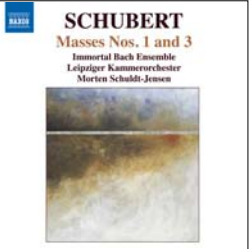
8.572364
제이콥:
리코더를 위한 실내악 작품집
애너벨 나이트(recorder)/ 마거
니 쿼렛/ 로빈 빅우드(pf) 외
고든 제이콥은 영국 왕립음악원
에서 본 윌리엄스를 사사했으며,
그 역시 모교에서 아놀드와 같은
거물급 제자를 가르쳤다. 바로크
음악에 몰입했던 그는 리코더를
위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현
악사중주와 리코더를 위한 모음
곡, 하프시코드와 리코더를 위한
소나티나, 리코더소나타, 리코더
콘소트 등의 수록곡들은 바로크
풍의 보수적인 스타일과 대중음
악적인 감각을 겸비했던 이 작곡
가의 음악 스타일을 잘 보여준
다.



8.572309
JS 바흐:
반음계환상곡과 푸가, 파르티타 4번, 영국모음곡 3번
리사 구드 크로포드(cemb)
미국의 대표 하프시코드 연주자이자 오벌린 음악원 명예교수인 리사 구
드 크로포드가 프랑스 콜마르 박물관에 소장된 1624년산 루거스 하프
시코드로 바흐의 건반걸작 3편을 녹음한 음반. 독일 스타일 환상곡인
'반음계 환상곡과 푸가', 장대한 프랑스 풍 서곡이 포함된 파르티타 4
번, 이탈리아 양식의 전주곡이 포함된 영국 모음곡 3번 등을 통해 바흐
의 다양한 음악적 취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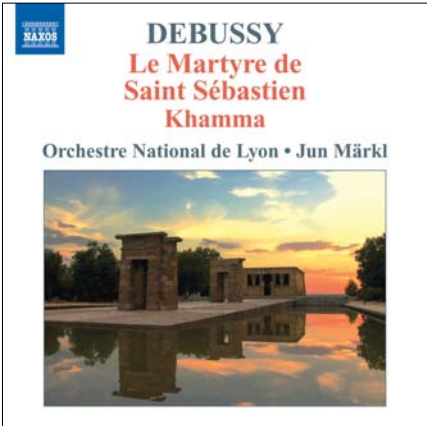
8.572436-37 [2CDs]
메시앙:
영성체의 책
폴 제이콥스(org)
1984년에 완성된 '영성체의 책'
은 오르간을 위한 메시앙의 마지
막 작품이자 가장 장편의 작품이
다. 원래 오르간을 위한 연습곡
을 목적으로 시작된 작품이었지
만, 작곡가 특유의 깊은 종교적
열정이 더해져서 다양한 영성체
송의 테마를 소재로 한 18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대작으로 변모
하게 되었다. 초반 네 악장은 영
성체 이전의 찬양을, 5-11 악장
은 예수의 생애를, 12-18 악장은
영성체 자체의 여러 특징을 테마
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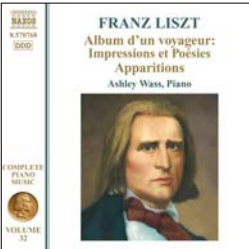
8.572279
슈베르트:
미사 1,3번
이모탈 바흐 앙상블/ 모르텐 솔
트-엔센/ 라이프치히 카머오케
스터
슈베르트는 불과 17세의 나이로
미사 전곡을 완성하였다. 바로
본 음반에 수록된 D.105로, 스승
살리에리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이트 풍의 고전양식 속에 작곡
가 자신의 천부적인 서정성을 가
득 담은 매력적인 작품이며, 특
히 독창과 합창 그리고 3대의 트
럼بون이 포함된 오케스트라를 효
과적으로 활용한 상투스가 단연
돋보인다. D.324는 그 이듬해
완성된 작품으로 1번에 비해 한
결 외향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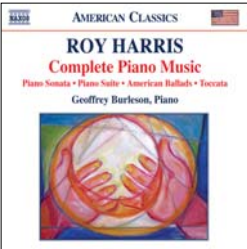
8.572336
쇼팽:
피아노협주곡 2번, '우리 손을 잡고' 변주곡
엘다 네볼신(pf)/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리스트의 피아노협주곡집으로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우즈벡 출신의 비
르투오조 엘다 네볼신이 쇼팽의 피아노협주곡들에 도전한다. 안토니 비
트와 바르샤바 필의 든든한 서포터가 더해진 협주곡 2번은 협주곡 1번
에서 보여준 연주의 완성도와 감동을 그대로 계승한다. 모차르트 오페
라 '돈조반니' 중 '우리 손을 잡고'에 의한 변주곡과 '안단테 스피아나
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를 함께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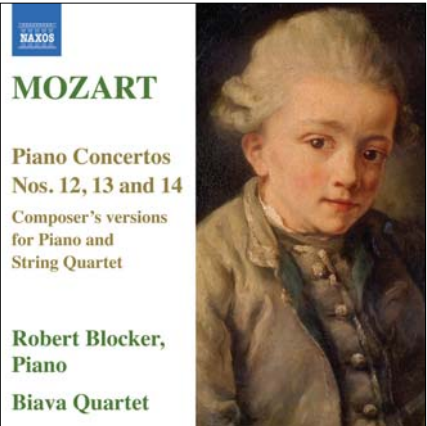
8.572297
드뷔시:
성 세바스티앵의 순교, 캄마, 리어왕
윤 매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윤 매르클과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인 드뷔시 관현악 시리즈
의 4번째 음반. 다뉴치오의 신비곡을 위한 극부수음악인 '성 세바스티
앵의 순교'에서 발췌한 연주회용 모음곡과 괴슬랭이 관현악곡으로 편곡
한 고대 이집트 배경의 작품인 '캄마: 춤의 전설', '리어왕'을 위한 두
편의 극부수 음악, 그리고 작곡가에게 로마대상을 수여한 '돌아온 탕
아' 중 행진과 춤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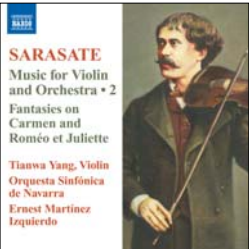
8.570768
리스트:
여행가의 앨범 중 인상과 시,
환상들
애슐리 위스(pf)
낙소스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집
의 32번째 음반으로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인 영국의 신성
애슐리 위스가 '여행가의 앨범'
의 첫 파트인 '인상과 시'와 '환
상들'을 연주하였다. '인상과
시'는 '리옹', '발렌슈타트의 호
수', '샘가에서', '제네바의 중',
'오베르만 계곡', '가움 텔의 성
당', '시편' 등의 일곱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다섯 작품은
개작을 거쳐 '순례의 해' 중 첫
해인 스위스편에 전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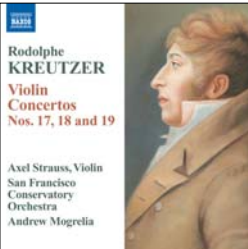
8.559664
해리스:
피아노소나타, 작은 모음곡, 피
아노모음곡, 아메리칸 발라드 외
제프리 버틀슨(pf)
20세기 최고의 미국 교향곡으로
꼽히는 교향곡 3번으로 유명한
로이 해리스는 피아니스트였던
아내를 위해 몇 편의 피아노곡들
도 완성하였다. 바로크시대에 대
한 오마주인 '토카타', 근대 프
랑스 음악의 영향이 느껴지는 피
아노소나타, '조니의 개선'을 비
롯한 여러 미국 민요들을 소재로
만든 아메리칸 발라드 연작, 흑
인영가와 아일랜드 민요를 인용
한 피아노모음곡 등 이 작곡가의
다양한 음악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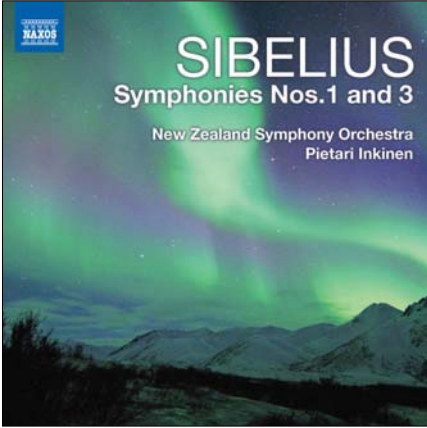
8.557881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2, 13, 14번 (실내악버전)
로버트 블록커(pf)/ 비아바 현악사중주단
모차르트는 1781년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에 새 동지를 틀었다. 협주곡
12-14번은 그해 여름에 완성된 작품들로 작곡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
던 대중 콘서트를 통해 처음 소개된 작품들이다. 모차르트의 출판 당시
오케스트라나 현악사중주 양쪽 모두로 반주가 가능하다는 주석을 달았
는데, 후자에 의한 실내악 버전은 이 작품들의 아가자기한 아름다움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드러낸다.



8.572216
사라사테:
카르멘 판타지,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에 의한 판타지 외
티안와 양(vn)/ 에르네스트 마르
티네스 이스퀴에르도/ 나바라 심
포니 오케스트라
파가니니 이후 가장 걸출한 바이
올린 비르투오조였던 사라사테
는 자신의 뛰어난 기교를 과시하
기 위해 화려한 쇼피스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비제의 오페라 '카
르멘'의 대표선율들을 조합하여
완성한 '카르멘 판타지'는 '치고
이네르바이젠'과 더불어 사라사
테의 대표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
엣'의 선율들에 기초한 연주회용
환상곡 역시 그에 버금가는 화려
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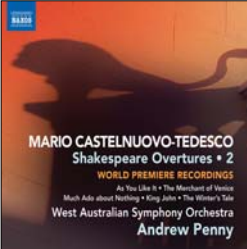
8.570380
크로이처:
바이올린협주곡 17-19번
악셀 슈트라우스(vn)/ 앤드류 모
렐리아/ 샌프란시스코 음악원 오
케스트라
음악애호가라면 크로이처라는
이름이 친근할 것이다. 바로 베
토벤의 바이올린소나타 Op.47을
헌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이
름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대만
걸출한 바이올린연주자였으며,
작곡가로서도 다수의 협주곡을
완성하였다. 특히 그의 마지막
세 협주곡은 단순한 쇼피스 수준
을 넘어서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
로, 고전협주곡의 미덕을 충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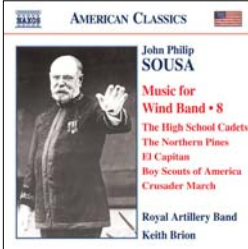
8.572305
시벨리우스:
교향곡 1,3번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지휘자 피에타리 인키넨은 현재 뉴질랜드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시벨리우스의 관현악작품집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그가 교향곡 사이클에 도전장을 내었다. 북구의 음울한 분위기를 차이코프스키의 로맨틱한 서법으로 표현한 교향곡 1번과 자신만의 개성적인 악풍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작품인 교향곡 3번이 이들의 첫 도전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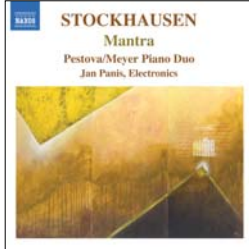
8.572088
리스:
피아노협주곡 Op.120, Op.115, 전주곡과 론도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우베 그로트/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는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양식의 작품을 도합 14곡 완성하였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퍼 힌터후버가 진행중인 작곡가의 피아노협주곡 시리즈의 4번째 음반에는 '전원협주곡'이라는 부제의 협주곡 Op.120과 스승 베토벤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Op.115, 그리고 스스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음을 반증하는 화려한 쇼피스인 '전주곡과 화려한 론도'를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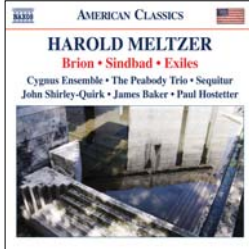
8.572501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셰익스피어 서곡 2집
앤드류 페니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마리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에서 영감을 얻은 11편의 연주회용 서곡들을 완성하였다. 지난달 소개되었던 1집에 이어 2집인 본 신보에는 '당신 좋으실 대로', '베니스의 상인', '헛소동', '존 왕', '겨울 이야기'의 다섯 작품을 수록하였다. 이중 '헛소동'을 제외한 4작품은 본 음반이 최초녹음에 해당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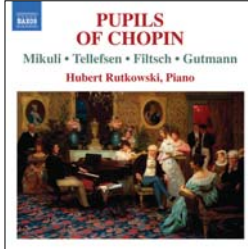
8.559248
수자:
관악 밴드를 위한 음악 Vol.8
(워싱턴 포스트 마치 포함)
케스 브라이언
왕립 포병 군악대
'행진곡의 왕' 존 필립 수자의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 시리즈의 8번째 음반.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 마치'와 브로드웨이 초기 히트 뮤지컬이었던 'El Capitan'의 수록곡인 'Oh, Warrior Grim', 영국 순회 공연을 기념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백작, 공작부인, 왕비를 위한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인 '궁전에서' 등을 수록하였다.



8.572398
슈톡하우젠:
만트라
페스토바-마이어 피아노 듀오, 안 파니스(전자음향)
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어쿠스틱 음악과 전자음향을 결합시킨 작품인 '만트라'는 20세기 현대음악에서 큰 줄기를 이뤘던 전자음악 분야의 대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이 1970년에 발표한 문제작이다. 슈톡하우젠은 이 작품을 통해 전자음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본 음반은 슈톡하우젠의 조수로 활약했던 안 파니스가 자신이 직접 고안한 디지털 음향장치를 동원하여 녹음한 것이다.



8.559660
멜처:
브라이언, 신드바드, 탈출, '사일러스 마너'의 두 노래
피바디 트리오, 시그너스 앙상블
1966년 뉴욕에서 태어난 해롤드 멜처는 2008년 발로우 상을 수상하면서 미국의 주목할 만한 젊은 작곡가로 급부상하였다. 2009년 풀리처상 최종 후보작이었던 '브라이언'은 스트라빈스키의 '아곤'의 영향이 느껴지는 독특한 악기 편성의 실내악이며, 첼로반주의 성악곡인 '사일러스 마너'의 두 노래,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バリ톤이었던 존 설리-퀴크가 나레이션을 맡은 피아노 트리오 '신드바드' 등을 수록.



8.572344
쇼팽 제자들의 피아노음악
(미쿨리, 텔레프센, 필츨, 구트만)
후베르트 루트코브스키(pf)
쇼팽이 파리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네 명의 작곡가들의 다양한 피아노 소품들을 담은 음반. 같은 폴란드 출신인 카롤 미쿨리, 노르웨이 태생의 토마스 텔레프센, 트랜실바니아 출신의 카를 필츨,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아돌프 구트만이 그들로, 이들이 작곡한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왈츠, 즉흥곡, 녹턴 등등은 스승의 질을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8.572228-29 [2CDs]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지작, 만케, 겐츠, 루카스/ 윤 메르클/ MDR 심포니와 합창단
구약의 선지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는 하이든 이후 서양음악사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걸작에는 바흐나 헨델과 같은 바로크 선배 작곡가들에 대한 열정과 자신 특유의 로맨틱한 음악세계가 어우러져 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방송교향악단인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와 현 상임지휘자인 윤 메르클이 연주를 맡았다.



8.572446
카셀라:
첼로협주곡, 5월밤, 스카를라티아나
안드레아 노페리니(vc)/ 유선희(pf)/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로마 심포니
5월밤'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완성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관현악반주 성악곡이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들의 선율을 엮어 완성한 피아노협주곡 양식의 디베르티멘토인 '스카를라티아나'에서는 로마에서 활동 중인 우리 피아니스트 유선희가 독주를 맡았다. 작곡가 스스로 '보다 발전된 왕벌의 비행'이라 불렀던 기교적인 3악장이 인상적인 첼로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450
루토스와프스키:
파르티타, 간주곡, 체인 I & II
후지코 이마지시(vn)/ 비를트 루토스와프스키/ 뉴 뮤직 콘서트 앙상블
20세기의 위대한 폴란드 작곡가 비를트 루토스와프스키가 지휘봉을 잡았던 마지막 콘서트 상황. 1993년 10월 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으로 CBC의 음원을 최초로 CD로 발매한 것이다.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파르티타와 체인 연작, 초현실주의 작가 로베르트 데스노스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 'Chantefleurs et Chantefables' 등을 수록하였다.



8.572120
에네스쿠:
피아노소나타 1번, 모음곡 2번, 즉흥 소품
마테이 바르가(pf)
에네스쿠는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매력적인 피아노 독주곡들도 소수 남겼다. 토카타, 사라방드, 파반느, 부레로 구성된 그의 모음곡 2번은 바흐를 비롯한 바로크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과 드뷔시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담은 작품이며, 7개의 즉흥 소품 중 '코랄'과 '칼리옹'에서는 메시아를 예견케 하는 독특한 색채감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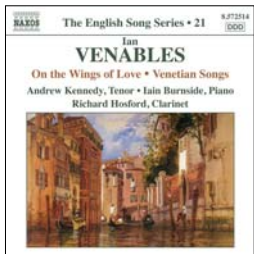
8.572068
데 네브라:
건반소나타 1집
페드로 카잘스(pf)
18세기 후반 스페인의 작곡가였던 데 네브라는 26편의 건반소나타를 완성하였다. 본 음반의 수록곡들은 그중 가장 초기작에 해당하는 것들로, 특히 오수나방드, 파반느, 부레로 구성된 그의 모음곡 2번은 바흐를 비롯한 바로크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과 드뷔시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담은 작품들이다. 반면 몬테세라트 수도원 필사본에 수록된 5 소나타는 느리고 빠른 두 개의 악장이 결합된 보다 발전된 형식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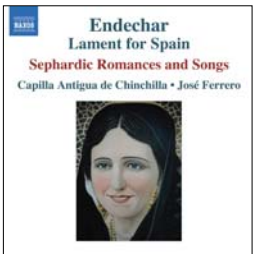
8.572125
하이든:
대오르간 미사, 하일리히 미사
트리너티 합창단/ J 오웬 버딕/ 레벨 바로크 오케스트라
1768년과 69년에 걸쳐 완성된 '대오르간 미사'는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궁정을 위해 만들었던 초기 종교음악들 중 하나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장대한 오르간 오블리가토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하일리히 미사'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17세기 독일 수도승인 베르나르드 폰 오피다의 상투스 선율에 기초하였기에 'Sancti Bernardi von Offida'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8.572346
비에르네:
사랑의 시, 프시케, 비탄의 발라드 외
마이클 번디(br)
제레미 필젤(pf)
루이 비에르네는 근대 프랑스 오르간 악파의 대표 작곡가로 유명한 이름이지만, 예술가곡 분야에서도 걸출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사랑의 시'는 나폴레옹 시대의 달력의 4개월을 뜻하는 '플로레알', '테르미도르', '브뤼마이어', '니보스'의 소 제목 아래 도합 15곡의 가곡을 담은 우아한 매력의 연가곡집이다. 각각 사랑과 죽음을 소재로 다룬 두 가곡 '프시케'와 '비탄의 발라드'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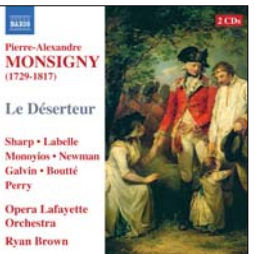
8.572514
베네이블스:
사랑의 날개 위에, 베니스의 노래 외
앤드류 케네디(te)
이안 번사이드(pf)
리처드 호스포드(cd)
얀 베네이블스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영국의 가곡 작곡가고, 보수적인 조성음악의 틀 안에서 특유의 따뜻한 서정성을 담아내었다. 클라리넷과 피아노 반주에 의한 매력적인 연가곡인 '사랑의 날개 위에'와 베네치아의 풍광을 감미롭게 표현한 '4개의 베네치아의 노래'를 비롯한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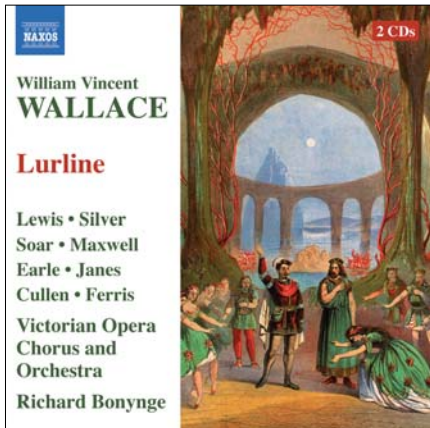
8.572443
엔데차르 -
스페인을 위한 라멘트
호세 페레로
카피야 안티구아 데 친치야
세파르디는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을 말한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은 이들 세파르디의 문화와 전통이 깊게 뿌리 내린 지역이다. 1492년 레콩키스타의 완성과 함께 세파르디는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추방되었는데, 당시의 애환과 고통을 담았던 노래들이 바로 엔데차르다. 유태와 아랍, 그리고 스페인의 전통음악이 골고루 혼재된 이 작품들의 독특한 매력을 만나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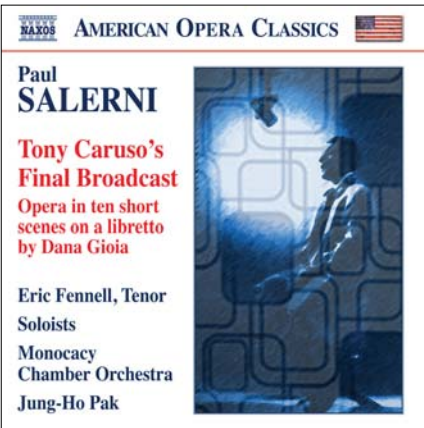
8.660255-56 [2CDs]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데니레 란카토레 외
안토니노 풀리아니
베르가모 도니제티 페스티벌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도니제티를 대표하는 벨칸토 오페라 걸작이다. 본 CD는 2006년 베르가모의 테아트로 도니제티 극장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미 Dynamic을 통해 DVD로도 소개되었던 음원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콜로라투로 소프라노 데지레 랑카토레가 타 이를 롤을 열연하였다.



8.660263-64 [2CDs]
몽시니:
탈영병 (Le Desrteur)
라이언 브라운
오페라 라파예트
피에르 몽시니가 작곡한 오페라 코미크 '탈영병'은 사형선고를 받은 애인을 구출하는 여인의 활약을 다룬 '구출' 오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노래들과 풍부한 표정을 담은 음악으로 초연 직후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지만, 지금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진 비운의 작품이다.



8.660293-94 [2CDs]
월레스:
렐라인
키스 루이스 외/ 리처드 보닝/ 빅토리안 오페라
윌리엄 월레스의 오페라 '렐라인'은 라인 강가의 로렐라이 바위 위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수장시켰던 유명한 요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본 음반은 오페라계의 거장 리처드 보닝이 지휘를 맡은 것으로, 지휘자 본인이 준비한 새로운 에디션에 의한 연주를 수록한 것이다. 19세기 영국 고유의 오페라 전통을 충실히 지켰던 작곡가인 월레스의 대표작이 최초로 음반으로 출시되었다.



8.669031
샬러니:
토니 카루소의 마지막 방송
에릭 펜넬 외/ 박정호/ 모노캐시 챔버 오케스트라
한국계 미국 작곡가 얼 킴의 애제자였던 폴 샬러니는 무대 음악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작곡가다. 그의 오페라 '토니 카루소의 마지막 방송'은 10개의 짧은 장면들이 연결된 오페라로 클래식 라디오 방송국의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토니 카루소의 애환을 독특한 스타일로 그려낸 작품이다. 미국에서 활약중인 우리 지휘자 박정호가 지휘를 맡았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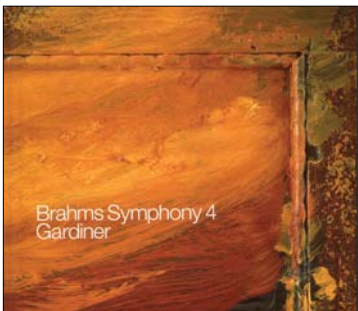


8.112056
존 맥코맥 에디션 Vol.8
1918-1920 어쿠스틱 레코딩스
존 맥코맥 에디션의 여덟 번째 음반. 카루소를 능가하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무렵인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의 어쿠스틱 레코딩 중에서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파퓰러 송들을 노래한 28 트랙을 모았다. '여름의 첫 장미', '내 마음의 장미', '매기의 추억', '롬바르디의 달 아래서', '사랑스런 폐기 오일'과 같은 추억의 노래들이 포함되었다.



Soli Deo Gloria [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 705
브람스: 교향곡 4번
베토벤: 코리올란서곡 외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가디너와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가 드디어 완결되었다. 2008년 10월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고품스런 분위기와 함께 작곡가 특유의 진한 고독감을 담은 교향곡 4번 외에도 브람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선배작곡가들인 베토벤의 코리올란서곡, 슈츠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흐의 칸타타 '주여,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의 일부, 가브리엘리의 12성부를 위한 상투스과 베네딕투스과 더불어, 브람스 자신의 합창곡인 '성스러운 노래'와 '축제적이고 기념적인 격언'이 함께 수록되었다.



SDG 710
Santiago a capella
(게레로, 빅토리아, 로부, 카르도주, 로지예르 외)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2004년 몬테베르디합창단은 자신들의 결성 40주년을 기념하여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하는 옛 순례지 선상의 여러 성당들에서 공연을 가지면서 뜻깊은 음악순례여행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앞서 선보였던 '산타아고로의 순례여행'에 이어지는 본 음반은 과거 유니버설을 통해서 발매되었던 것이나, 이번에 보다 고급스런 패키지로 재발매되었다. 몬테세라트 수도원의 레드북 필사본의 수록곡과 빅토리아, 로부, 카트두수, 게레로 등의 르네상스 폴리포니 종교합창곡들이 담겨있다.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연작과 산티아고로의 순례여행

- SDG 701 산티아고로의 순례여행 (빅토리아: 미사 'O Quam Gloriosum' 외)
- SDG 702 브람스: 교향곡 1번
- SDG 703 브람스: 교향곡 2번
- SDG 704 브람스: 교향곡 3번
- SDG 707 JS 바흐: 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전곡



Soli Deo Glo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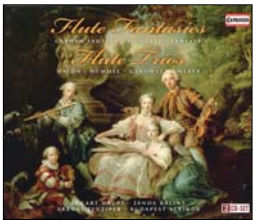


Capriccio

www.capriccio.at



C7065 [3Hybrid-SACD]
베르티니 에디션
(베를리오즈, 드뷔시, 라벨)
마르타 아르헤리치(pf)/ 게리 베르티니/ 필른 방송교향악단
게리 베르티니는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세인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지만, 그는 프랑스 근현대 관현악 레퍼토리들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에디션은 그가 필른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시절 남긴 콘서트 실황들을 모은 것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바다', '야상곡', 라벨의 '라 발스와 다프니스와 클레오 모음곡 2번, 그리고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독주를 맡은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2 작품을 3장의 Hybrid-SACD에 수록하였다.



C7052 [2 for 1]
플루트트리오 + 플루트판타지
(홀멜, 도플러, 베버 외)
야노스 발린트, 임레 코바츠, 에카르트 파우프트(f)/ 부다페스트 스트링스 외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환상곡'과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판타지와 변주곡, '헝가리 환상곡', 브리치알디의 '베네치아의 사육제', 보르네의 카르멘 선율에 의한 판타지 브릴리안테 등의 플루트를 위한 화려한 환상곡들을 담은 음반과 홀멜, 하이든, 베버, 기로베츠 등의 아가자기한 플루트 트리오들을 수록한 음반을 합본하여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재출시하였다.



C7061 [2 for 1]
헨델:
오페라 아리아와 이탈리아 칸타타
요한 코발스키(alt)/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외
독일의 정상급 카운터 테너 요한 코발스키가 노래하는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와 이탈리아 칸타타들. 독립적으로 발매한 두 장의 CD를 합본한 것으로, '리날도', '세르세', '줄리오 체사레', '알치나', '메시아', '이집트의 이스라엘사람들', '벨사자르' 등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 삽입된 유명 알토 아리아와 이탈리아 양식의 솔로 칸타타 다섯 작품을 수록하였다.



C5054 [2 for 1]
밍쿠스:
발레 '돈키호테' 전곡
보리스 스파스프/ 소피아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러시아 작곡가 레온 밍쿠스는 19세기 가장 중요한 발레음악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소재로 한 발레 '돈키호테'는 '라 바야데르'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869년 볼쇼이극장에서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지금도 가장 사랑받는 로맨틱 발레의 걸작으로 널리 공연되고 있다. 본 음반은 1995년에 발매되었던 음원을 영가 재발매한 것으로, 첫 발매 당시 이 작품 최초의 전곡녹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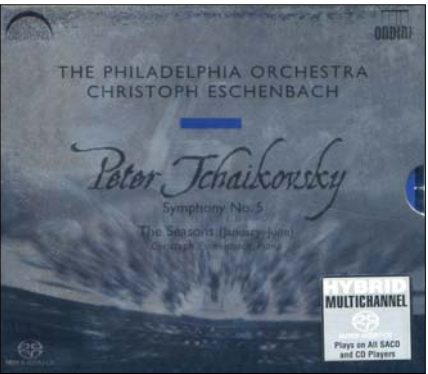


Ondine

www.ondine.net



ODE 1072-5 [Hybrid-SACD]
버르톡:
관현악협주곡, 마르티누: 리디체 추모 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BBC 뮤직 매거진 이달의 음반,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독일 비평가협회상, Classicstoday 10/10버르톡 최후의 관현악 걸작인 '관현악협주곡'은 제목 그대로 오케스트라의 단원 모두의 뛰어난 연주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이다. 본 음반은 에센바흐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시절 완성한 음반들 중에서도 가장 큰 호평을 받았던 음반으로 연주와 녹음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ODE1076-5 [Hybrid-SACD]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사계 중 1-6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cond & pf)/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Classicstoday 9/10지휘자와 피아니스트 양쪽 모두에서의 에센바흐의 활약상을 담은 음반. 교향곡 5번의 당당한 연주는 물론 에센바흐 특유의 섬세한 터치로 작품의 서정을 잘 살려낸 '사계'의 매력도 각별하다.
“이 SACD의 음향은 대단히 깨끗하며 폭넓은 음역대를 보여준다. 앙상블의 밸런스도 대단히 자연스럽다” – Classicstoday

MN Records

www.mnrecords.com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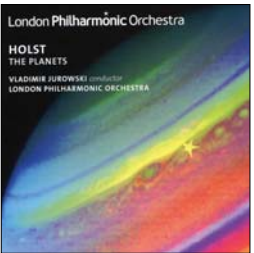
LPO

www.lpo.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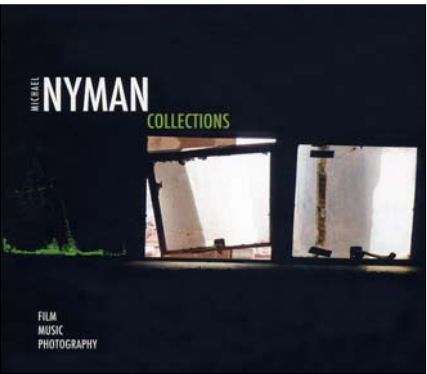
LPO-0047 [2CDs]
베르디:
레퀴엠
프라이스, 부다이, 자코미니, 로이드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 런던 필과 합창단

이탈리아의 애국지사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베르디의 레퀴엠은 고금의 수많은 레퀴엠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걸작 중 하나다. 본 신보는 1983년 4월 24일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당시 런던 필의 수석객원지휘자였던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봉을 잡고, 마가렛 프라이스, 주제페 자코미니, 로버트 로이드와 같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한 걸출한 공연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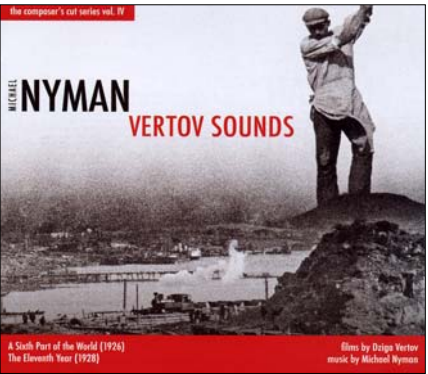


LPO-0048
홀스트:
행성 모음곡 전곡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수성에서 해양성까지 지구를 제외한 일곱 행성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홀스트의 행성은 20세기 영국 관현악 레퍼토리들 중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인기작이다. 본 신보는 2009년 5월 22일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런던 필의 현 상임지휘자인 러시아 출신의 젊은 거장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런던 필의 정교한 합주력이 멋진 조화를 이뤘다.



MNRC 204
니만:
베스트 컬렉션 (+ DVD '5000 Photos can't be wrong')
마이클 니만/ 마이클 니만 밴드 외
작곡가, 필름제작자, 사진작가, 연주자로서의 니만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의 신보. 한장의 CD에는 '피아노', '프로스페로의 서재',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등의 그의 대표적인 영화음악들과 'MGV', '6개의 셀란 송', '모차르트 252', 'The Glare' 등의 대표반들에 발매한 트랙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니만 베스트 음반이며, 5000여 장의 사진을 조합하여 만든 독특한 스타일의 비디오 아트인 '5000 Photos Can't be Wrong'을 담은 DVD와 니만 자신의 사진작품을 담은 포토북이 함께 제공된다.



MNRC 118
니만:
베르토프 사운즈
마이클 니만/ 마이클 니만 밴드
지가 베르토프는 1920년대에 활동했던 구소련의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였다. 마이클 니만은 베르토프의 두 필름 'The Eleventh Year'와 'A Sixth Part of the World'에 자신의 스타일로 필름 배경음악을 완성하였는데, 본 음반에서는 두 필름을 위한 스코어를 교차조합하여 77분에 달하는 하나의 연속된 작품으로 재구성하였다. 강한 그루브감과 격렬한 리듬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니만 스타일의 작품이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독일의 고품격 마이너 레이블 Solo Musica를 소개합니다.

Solo Musica는 아티스트 친화적인 레이블로 유럽 클래식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레이블로 특히 실내악 분야에서 독특한 기획과 뛰어난 연주, 그리고 고품격의 녹음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품위 있는 디지팩 패키지 또는 슈퍼 주얼 케이스 패키지가 이 레이블 음반들의 소장가치를 한층 더 높여 주고 있습니다.



SM126
현악사중주의 탄생
(스카를라티, 삼마르티니, 보케리니, 하이든, 모차르트)
카살 퀸텟 (2010 Echo Klassik 수상작)

카살 퀸텟이 17세기 독일의 유명 악기 장인 야코부스 슈타이너가 제작한 오리지널 악기들로 현악사중주의 가원을 들려준다.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소나타와 삼마르티니의 신포니아와 더불어, 근대 현악사중주의 개척자들인 하이든, 보케리니,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하나씩을 함께 수록하였다. 옛 악기들의 고아한 소노리티와 뛰어난 녹음이 어우러진 이 음반은 오디오파일러들에게도 사랑받을 것이다.



SM106
피아졸라: 탱고 센세이션스
카살 퀸텟
미카엘 치스만(bandoneon)
니나 안젠(c)
(Klassik Heute 10점)

피아졸라는 밤거리 퇴폐 음악으로 천시되었던 탱고를 클래식의 한 장르로 격상시켰던 인물이다. 본 음반에는 크로노스 퀸텟을 위해 완성했던 작품인 반도네온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5 탱고 센세이션스' 외에도, 전통적인 현악사중주 편성으로 보다 클래식한 느낌으로 연주한 'Oblivion', 'Michelangelo', 'Milonga del Angel', 'Loca Bohemia', 'Escualo' 등의 피아졸라의 인기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SM133
슈베르트:
피아노오중주 '송어', 슈만: 피아노오중주
카르미나 퀸텟/ 코코 타베(pf)
페트루 아우가(db)

2008년 일본 레코드 아카데미상, 2009년 Pizzicato Supersonic 선정
슈베르트의 피아노오중주 '송어'와 슈만의 피아노오중주는 로맨틱 실내악 레퍼토리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걸작들이다. 1984년 스위스에서 결성된 카르미나 퀸텟은 산드로 베그, 아르농쿠르 등의 지원에 힘입어 유럽의 일급 실내악단으로 성장한 단체이며, 일본의 중견 피아니스트 코코 타베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SM130 [2CDs]
Encores & More
(유명 바이올린 소품 모음집)
프리데만 아이흐호른(vn)
페르 핀다이젠(pf)

몬티의 '차르다슈', 후바이의 '헤이레 카티', 하차투랴의 '갈춤', 불랑제의 '피치카토 폴카', 무소르스키의 '호박', 비에냐프스키의 '쿠아비악' 등등 리사이틀 앙코르 곡들로 사랑받고 있는 고금의 귀에 익은 화려한 바이올린 소피스들을 2장의 CD에 가득 담은 음반. 바이마르 리스트 음대 교수인 프리데만 아이흐호른의 12번에 걸친 리사이틀 실황들을 모은 것으로,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와 함께 현장의 열기가 생생하게 담겼다.



SM125
Romantic Virtuosity
(트럼펫 쇼피스 모음집)
줄리아노 쾰머할더(tp)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
노이에 필하모니 베스트팔렌

지난 2006년 21세의 젊은 나이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수석으로 발탁된 줄리아노 쾰머할더는 현재 독일을 대표하는 젊은 트럼펫 비르투오조로 각광받고 있다. 본 음반에는 후기낭만시대의 대표적인 트럼펫 거장들인 바실리 브란트의 콘서트 피스 1,2번과 오스카 뵘의 협주곡과 타란텔라, 그리고 근대 러시아 작곡가 페스킨의 협주곡 1번과 같은 화려한 트럼펫 쇼피스들이 가득 담겨 있다.



SM101
오페라 판타지
(거친, 베르디, 로시니, 오펜바흐)
나타샤 코르사코바(vn)
키라 라트너(pf)

유명 오페라의 친근한 선율들에 기초한 다섯 곡의 바이올린 쇼피스들을 담은 음반. 비외랑이 편곡한 베르디 '에르나니' 주제의 판타지,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가 편곡한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의 연주회용 편곡, 드르들라가 편곡한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에 의한 판타지, 그리고 거친의 '포기와 베스'는 하이페츠의 편곡과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풀물로프의 편곡 두 버전으로 수록하였다.



SM102
모셀레스-줄리아니:
Grande Duo Concertante 외
루이스 오르ланд이니(guitar)
베아트리체 베르틀트(pf)

기타와 피아노의 이중주라는 색다른 편성의 실내악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판타지아, 고전/낭만 전환기의 피아노의 대가 이그나츠 모셀레스와 기타의 달인 마우로 줄리아니의 공으로 완성한 작품인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 그리고 1967년 사랑한 스위스 작곡가 한스 하우그의 판타지아를 수록하였다.



SM131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소나타 1번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츠 외
세르게이 도가딘(vn)/ 알렉산더 마슬로프, 알렉산더 로젠블라트(pf)

198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세르게이 도가딘은 200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두각을 드러낸 젊은 기예의 피아노를 위해 완성한 바이올린소나타 1번, 본 음반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기도 한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더 로젠블라트가 비제의 선율들을 엮어서 완성한 '카르멘 판타지',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친근한 로맨틱 소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SM119
바스크스: 피아노사중주
브람스: 피아노사중주 3번
앙상블 라로
Pizzicato 추천음반

최근 주가 급상승 중인 라트비아 출신의 작곡가 피에타리 바스크스의 신비로운 실내악 작품인 피아노사중주와 멜랑콜리한 정서로 가득 채워진 브람스의 피아노사중주 3번 Op.60이 함께 수록되었다.
"내가 들어 본 가장 훌륭한 브람스 피아노사중주 3번"
- International Record Review



SM128
멘델스존:
모테트
볼프강 안테스베르거
원헌 호프칸토라이

독일의 저명한 합창 지휘자 볼프강 안테스베르거는 2009년 바시에른 슈타츠오퍼 합창단의 멤버들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던 원헌 호프칸토라이의 전통을 다시금 부활시켰다. 이들의 첫 레코딩인 본 음반은 서정미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베 마리아' 외에도 '3개의 시편' Op.78, 라틴 텍스트에 의한 '두 개의 종교 합창곡' Op.115 등 멘델스존의 주요 종교합창곡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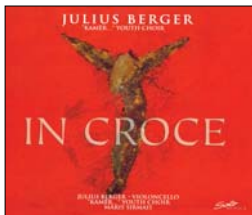
SM113
Songs & Dances of Life
(버트홀트, 슈베르트, 마르티누, 리게티 외)
라츠만 포로비치 & 크리스티안 나스(va)/ 다이아나 케틀러(pf)

두 대의 비올라와 피아노로 연주하는 발칸 반도 일대의 춤과 노래. 버트홀트의 44개의 비올라 이중주를 중심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를 위한 헝가리 선율, 리스트의 4개의 피아노소품, 아나체의 프리덱의 마돈나, 마르티누의 루트키 이야기, 리게티의 발라드 등의 이 지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클래식 소품들이 흥미롭게 어우러진 음반.



SM123
슈만: 피아노사중주
멘델스존: 육중주
마르가리타 뢰넨리더(pf)/ 게반트하우스 퀸텟/ 크리스티안 옥케르트(db)

1981년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인 뢰넨리더 출신의 독일의 중견 피아니스트 마르가리타 뢰넨리더의 최신보.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대표 실내악단인 게반트하우스 사중주단과 더불어 슈만의 피아노사중주 Op.47과 멘델스존의 육중주 Op.110을 녹음하였다. 또한 잉프리트 호프만이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한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 2번의 2악장이 함께 수록되었다.



SM120
In Croce
(니슈테트, 홀멜, 구바이둘리나, 바버, 칸첼리, 테브너)
율리우스 베르거(vc)/ 마리스 시르마이스/ 카머 청소년 합창단

독일의 저명한 첼리스트 율리우스 베르거와 라트비아의 캄머 합창단이 독특한 분위기의 현대적 교작품집을 선보였다.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에 가사를 입힌 '아뉴스 데이', 파트의 무반주 합창곡 'Nunc Dimittis', 그리고 첼로독주와 합창을 위한 작품들인 테브너의 'Svyati', 나스테트의 '스타바트 마테르', 그리고 구바이둘리나와 칸첼리의 첼로독주를 위한 종교적 분위기의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SM115
Romaamor
(헝가리 집시 전통음악)
칼란도스 앙상블

칼란도스 앙상블은 네덜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카렐 뵘슨이 헝가리의 일급 전통 뮤지션들을 모아서 결성한 집시 밴드다. 브람스의 헝가리춤 4번의 오리지널 작품인 'Repul a szan'을 비롯한 헝가리의 집시 음악들과 후일 하이페츠의 편곡으로 유명해진 디니쿠의 '호라 스타카토' 등의 피들 음악, 그리고 루마니아의 민속음악들의 색다른 매력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음반이다.



Dynamic

www.dynamic.it



CDS 656/1-3 [3 for 1.5]
몬테베르디:
성모의 저녁기도, 미사 'In Illo Tempore'
로베르토 지니/ 콘체르토 팔라티/ 노, 앙상블 라 파파레스카

1610년에 완성된 '성모의 저녁기도'는 몬테베르디가 남긴 여러 종교음악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오페라 '오르페오'에도 삽입되었던 팡파르로 화려하게 시작되는 이 작품은 르네상스/바로크 전환기에 급변했던 음악스타일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본 음반은 두 편의 마니피카트까지 작품 전체를 온전히 수록하였고, 작곡가의 또 다른 종교음악 걸작인 미사 'In Illo Tempore'도 함께 담았다.



CDS 660
롤리: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루카 판포니(vn)/ 마리아느 켄(vc)/ 파울라 델 주디체(cemb)

안토니오 롤리는 18세기의 걸출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였다. 당대에는 큰 명성을 얻었던 연주자였으나,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0편의 협주곡을 비롯하여 바이올린을 위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음반에 수록된 통주저음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는 화려함이 돋보이는 기교적인 패시지와 더불어 남극 특유의 유려한 선율들이 가득 담겨 있다.



IDIS 6595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 4번
루돌프 제르킨(pf)/ 프란코 카라치올로, 페루치오 스칼리아/ RAI 오케스트라

1903년에 태어나 1991년에 사망한 유재계 피아니스트 로돌프 제르킨은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이었다. Dynamic에서는 그가 1958년 이탈리아의 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음원을 3장의 CD로 복원하였다. 협주곡 1번은 나폴리 RAI 방송교향악단과, 협주곡 4번은 로마 RAI 방송교향악단과 협연한 기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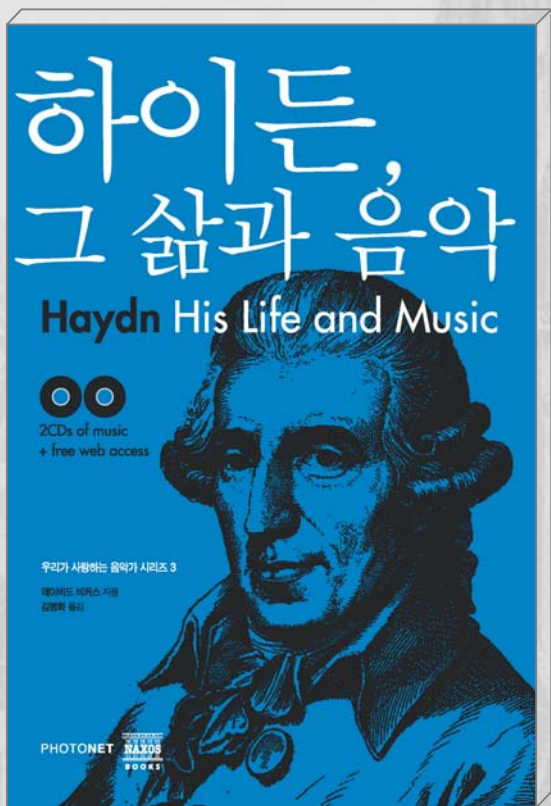


IDIS 6597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2, 3번
루돌프 제르킨(pf)/ 프란코 카라치올로, 페루치오 스칼리아/ RAI 오케스트라

1903년에 태어나 1991년에 사망한 유재계 피아니스트 로돌프 제르킨은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이었다. Dynamic에서는 그가 1958년 이탈리아의 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음원을 3장의 CD로 복원하였다. 협주곡 3번은 나폴리 RAI 방송교향악단과, 협주곡 2번은 로마 RAI 방송교향악단과 협연한 기록들이다.

국내 유일한 하이든의 본격 전기!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
하인에서부터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유머를 잃지 않았고
'파파(아버지)'라 불리며 사랑받았던
지난해 서거 200주년을 맞은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그를 생생한 음악과 함께 오늘 다시 만난다!
“그는 생전에 명성을 얻었고,
그 이름이 사후에까지 이어진
최초의 위대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_ 데이비드 비커스(저자)



데이비드 비커스 저 | 김병화 옮김 | 155×220mm | 248쪽
20,000원 (CD 2장 및 웹사이트 이용번호 포함) | 2010년 9월 1일 발행

+ 2CDs of music, free web access



음악만큼이나 매력적인 삶,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음악가를 이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글과 음악을 함께 접하는 것이다!
CD 2장과 함께 하는 음악가의 삶!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나소스의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하이든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CD 2장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며, 웹사이트에서 주요 작품들의 전 악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이든의 생애사, 음악사, 시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꼼꼼한 비교연표와 상세한 음악용어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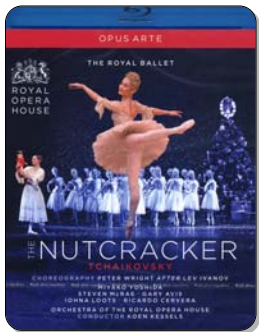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그 삶과 음악

Mozart His Life and Music + 2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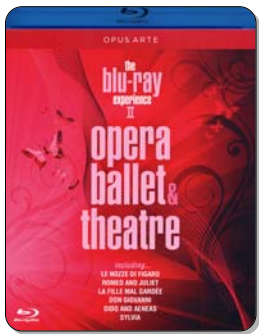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출간 예정 시리즈_쇼팽, 말러 등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 7072D



OpusArte OABD 7077D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이오나 루츠(클라라)/ 리카르도 케르베라(호두까기인형)/ 개리 애비스(드레셀마이어)/ 미야코 요시다(별사탕요정) 외/ 로얄 발레단/ 코엔 케셀스/ 로얄 오페라 오케스트라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인기 발레를 최상의 화질과 사운드로 만나다

차이코프스키의 3대 로맨틱 발레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적인 내용의 발레이기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가족용 공연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각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본 DVD는 영국이 자랑하는 로얄 발레단의 2009년 11월 26일과 12월 2일의 공연을 편집 수록한 것으로, 이 발레단의 계관감독이자 영국이 자랑하는 발레계의 국보급 거물인 피터 라이트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피터 라이트의 후계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중견 발레리노 개리 애비스가 드레셀마이어를 열연한 이 프로덕션은 1995년부터 로얄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약하다가 2010년 은퇴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미야코 요시다가 자신의 특기인 별사탕요정을 연기한 마지막 무대이기도 하다.

블루레이Blu-ray 샘플러 Vol.2

세계 클래식 DVD의 선구자 Opus Arte의 블루레이 샘플러 2집
최고의 영상으로 만나보는 클래식의 명장면들

○ 클래식 Blu-Ray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 OpusArte의 Blu-Ray Sampler 2집(Opera, Ballet & Theatre)을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돈조반니', 푸치니의 '라보엠', 홀퍼팅크의 '헨젤과 그레텔',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 등의 유명 오페라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들리브의 '실비아' 등의 유명 로맨틱 발레,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세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등 OpusArte의 최신 Blu-Ray 타이틀에서 엄선한 베스트 트랙들을 이 Sampler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수록곡 】

01. 헨델: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중 '이제 이집트의 땅에'
02. 들리브: 발레 <실비아>중 '피치카트'
03.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중 '그대 내게 매일 편지를'
04. 세익스피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중 '이 천한 손이 그대의 성소를'
05. 파셀: 오페라 <디도와 아네아스>중 '언덕과 계곡에 승리의 춤이'
06.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중 '주인마님! 놀라셨나요?'
07. 헤를드: 발레 <고집장이 딸>중 '파니 엘슬러의 파 드 듀'
08.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중 '미미를 소개하네'
09. 카발리: 오페라 <사랑에 빠진 헤라클레스>중 '기타의 콘서트'
10. 파셀: 오페라 <요정의 여왕>중 '보라, 밤이 여기에'
11.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중 '절반은 저리로 갔소'
12. 헨체: 발레 <온디네>중 '흔들리는 춤'
13. 홀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중 '판토마임'
14. 차이코프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중 '4막의 파 드 트로와'



모차르트: 황제 티토의 자비



OpusArte OABD 7068D

크리스토프 프레기디앙과 수잔 그레이엄이 들려주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였던 1791년 보헤미아의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되었던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다. 지극히 교훈적인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과 같은 오페라에 비해 상대적인 인기가 부족하나, 클라리넷을 적극 활용한 충실한 기악 파트와 특유의 유려한 선율미로 가득한 주목할 작품임에 틀림없다. 로마 황제 티토(티투스: 재위 79-81년)와 관련된 일화를 다루었다. 오페라에서 티토는 자신을 살해하려고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인물로 그려지나, 수많은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성전을 폐허로 만든 장본인인 그가 실제 그러한 관용을 베풀었음지는 의문이다. 본 DVD는 2005년 5-6월 파리 가르니에 궁에서 있었던 공연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가수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게 된다. 현존 가장 위대한 복음사가이자 바로크 및 고전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성과를 쌓아온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기디앙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최고의 성과를 쌓아온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기디앙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국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이 황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물인 세스토를 노래하였다.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522

바그너: 리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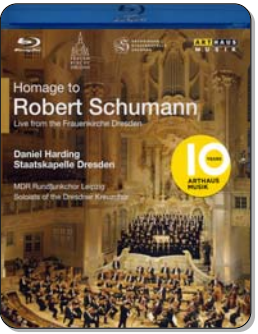
토르슈텐 케를(리엔치)/ 카말라 닐룬트(이레네)/ 케이트 알드리치(아드리아노)/ 안테 예르쿠니카(콜로나) 외
세바슈티안 랑-레싱/ 베를린 도이치오퍼

위대한 민중의 영웅 리엔치가 가즈스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부활하다

5막 오페라 <리엔치>는 명실상부한 바그너 최초의 출세작이었지만, 그는 후일 바이로이트에서 이 작품의 상영급지를 명하였다. 자존심 강한 그로서는 당시의 유행을 좇아서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 양식을 충실히 모방했던 이 작품이 그리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한 서곡을 비롯하여 후일 바그너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빼어난 선율의 아리아와 합창들을 담고 있기에 이 작품을 아끼는 바그네리언들도 많다. 특히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2010년 베를린 도이치오퍼에 올랐던 필립 슈넬의 프로덕션은 작품의 기존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놓은 충격적인 해석으로 화제를 모았다. 본 프로덕션에서 14세기의 로마는 제3제국으로 배경을 바꾸었고, 위대한 민중의 영도자 리엔치는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가즈스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무대 후반에 투영되는 옛날 기록영화 풍의 화면이나 2층 무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연출기법도 기발하기 그지없다.

슈만: 교향곡 3번 '라인', 게노베바 서곡, 미뇽을 위한 레퀴엠 외

MDR 방송합창단, 드레스덴 십자가합창단/ 다니엘 하딩/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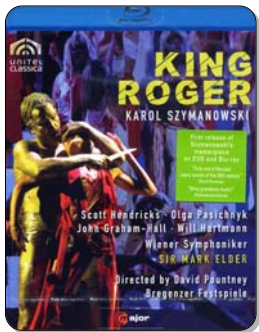
Arthaus 101 524

장엄한 드레스덴 성모 교회에서 펼쳐진 슈만의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

2010년 슈만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드레스덴 성모교회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드레스덴은 슈만이 1844년부터 1850년까지 머물렀던 도시다. 지휘자 세대교체의 기수로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았던 영국 출신의 청년 지휘자 다니엘 하딩이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한 이 특별한 콘서트는 슈만이 드레스덴 시절 남긴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작곡가의 유일한 오페라인 '게노베바'의 서곡,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기초한 합창곡인 '미뇽을 위한 레퀴엠', 헤벨의 시에 곡을 붙인 관현악반주의 합창곡 '밤의 노래', 미완성 상태의 관현악작품들인 스케르초와 아벤트무지크의 재구성 버전, 그리고 작곡가의 가장 걸출한 교향곡인 3번 '라인'이 함께 연주되었다. 성모교회의 장엄하고도 화려한 인테리어가 제공하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대단하다.



www.cmajor-entertain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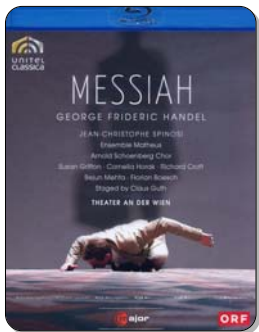
C-Major 702904

시마노프스카: 로게르 왕

스캇 헨드릭스(로게르), 올가 파시츠닉(룩산나), 존 그레이엄-홀(에드리시), 빌 하트만(양치기) 외
마크 엘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폴란드 방송합창단

성과 속의 치열한 갈등을 다룬 20세기 전반기의 위대한 오페라 걸작

1926년에 초연되었던 시마노프스키의 3막 오페라 <로게르 왕>은 한동안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바운의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20세기 전반기의 가장 위대한 오페라의 하나로 칭송받고 있다. 기독교의 신성과 술의 신 박카스로 대변되는 육체적 쾌락간의 치열한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1막 도입부의 전례합창, 2막의 양치기 추종자들의 춤, 3막의 대단원과 같은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특히 빼어나다. 본 영상은 2009년 브레겐츠 페스티벌 기간 중 호반무대가 아닌 축전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가 연출을 맡은 본 프로덕션은 간결한 무대세트 위에 변화무쌍한 조명을 투영함으로써 각 장면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으며, 주역 가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과 짐승의 두 개골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소품들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C-Major 703104

헨델: 메시아 (무대연출버전)

수잔 그리턴, 코르넬리아 호락(sop)/ 베윤 메타(alt)/ 리처드 크로프트(te)/ 플로리안 뵈슈(bass)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시/ 앙상블 마테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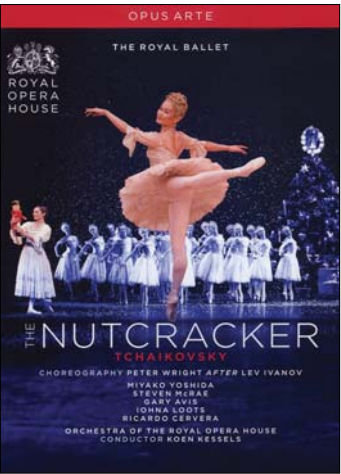
최고의 연출가 클라우스 구트, 메시아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다

오라토리오 중 일부 작품은 무대와 연기를 더하여 오페라와 같은 형태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한다. 두 장르가 극음악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기에 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헨델의 '메시아'는 이러한 시각화가 가장 난해한 오라토리오다. 메시아의 출현과 사역에 관한 신구약 성경 구절들로 단편적으로 구성된 리브레토만으로는 구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의 오페라 연출가 중 한 사람인 클라우스 구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작품의 시각화에 도전하였다. 직접적인 예수의 이야기 대신 세 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희로애락이 그 내용을 대신한다.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임재에 관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무대에서 전개되지만, 각 상황과 리브레토의 성경구절은 절묘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낸다. 일급 가수들로 구성된 독창진의 열연과 열창, 그리고 바로크 오페라 스페셜리스트인 지휘자 스피노시의 개성적인 해석도 이 독특한 프로덕션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36D

차이코프스카: 호두까기인형

이오나 루츠(클라라)/ 리카르도 케르베라(호두까기인형)/ 개리 애비스(드로셀마이어)/
미야코 요시다(별사탕요정) 외/ 로알 발레단/ 코엔 케셀스/ 로알 오페라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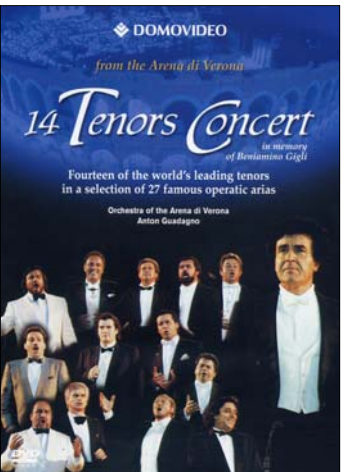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인기 발레를 최상의 화질과 사운드로 만나다

차이코프스키의 3대 로맨틱 발레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적인 내용의 발레이기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가족용 공연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각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본 DVD는 영국이 자랑하는 로알 발레단의 2009년 11월 26일과 12월 2일의 공연을 편집 수록한 것으로, 이 발레단의 계관감독이자 영국이 자랑하는 발레계의 국보급 거물인 피터 라이트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피터 라이트의 후계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중견 발레리노 개리 애비스가 드로셀마이어를 열연한 이 프로덕션은 1995년부터 로알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약하다가 2010년 은퇴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미야코 요시다가 자신의 특기인 별사탕요정을 연기한 마지막 무대이기도 하다.



Domovideo DVD

www.domovideo.com



Domovideo DVD DMM-513

14 테너 콘서트

카를로 베르곤지, 프랑코 보니솔리, 페터 드브로스키, 조르조 티에포, 에밀 이바노프 외
안톤 과다뇨/ 아레나 디 베로나 오케스트라

14명의 실력파 테너들이 펼치는 오페라 아리아의 대향연

1990년 8월 아레나 디 베로나에는 20세기 전반기의 위대한 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무후무한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이 펼쳐졌다. 14명의 실력파 테너들이 총출동하여 고급의 인기 테너 아리아 27곡을 선사한 것이다. 추억의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가 66세의 노구를 이끌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오 낙원'을 열창했으며, 지난 2003년 아쉽게 사망했던 대형 드라마틱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 슬로바키아의 국보급 테너 페터 드브로스키, 채석장 인부에서 시칠리아의 오페라 스타로 거듭났던 피에트로 발로, 벨칸토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살바토레 피시켈라, 구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인민예술가였던 아나톨리 솔로비아넨코 등을 비롯한 14명의 테너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최선의 가창으로 아레나 디 베로나를 가득 채운 관객들을 열광케 만들었다. 오페라 애호가들을 위한 색다른 별미로 손색이 없는 진귀한 영상물이다.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1 307

베르디: 시몬 보카네그라

로베르토 프론탈리(시몬)/ 카르멘 잔나타시오(아멜리아)/ 자코모 프레스티아(야코포) 외/
미켈레 마리오티/ 테아트로 코무날레 디 볼로냐

베르디의 중후기 걸작 중 하나인 '시몬 보카네그라'는 어두운 내용만큼이나 3명의 주역 저음남성 가수들의 중후한 앙상블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독특한 느낌의 작품이다.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탈리아 도시국가 시대의 실존 인물이다. 1339년 제노아 총독으로 선출되어 훌륭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던 총독이었지만 1363년에 정적에게 독살 당했다. 베르디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위에도 자신이 즐겨 다뤘던 소재인 부성애를 더하여 이 묵직한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본 영상은 2007년 볼로냐의 테아트로 코무날레의 무대에 올랐던 조르조 갈리오네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베르디 바리톤인 로베르토 프론탈 리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다. 젊은 지휘자 미켈레 마리오티는 바로 이 공연의 큰 성공으로 인해 다니엘레 가티의 후임으로 테아트로 코무날레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위촉되었다.

[보조자료]

○ '시몬 보카네그라'는 1857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베르디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초연 이후 24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881년에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개정판을 다시 무대에 올려 만족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오페라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노바의 뱃사람이었던 시몬 보카네그라는 평민들의 후원에 힘입어 이 도시의 총독이 된다. 하지만 과거 그는 귀족 피에스코 가문의 마리아를 사랑하여 딸을 낳았으나 결혼 승락도 받지 못한 채 연인은 죽고 딸은 잃어버린다. 25년의 세월이 흘러 시몬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상봉하게 되고 오랜만에 생의 환희에 감격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가 진행되어 시몬은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피에스코 가문과 화해를 이루면서 죽음을 맞는다.

○ 타이틀 롤을 노래한 로베르토 프론탈리는 대서양 양안의 일급 오페라극장들을 누비는 이 시대 최고의 베르디 바리톤이다. 데뷔초기에는 벨리니나 로시니 등의 벨칸토 레퍼토리들도 능숙하게 다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베르디 오페라의 저음 배역들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Arthaus DVD 101 485
[3DVDs]

A Tribute to Mirella Fre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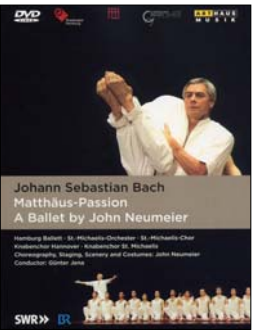
- 푸치니: 라보엠(Arthaus 100 047)
- 조르다노: 페도라(Arthaus 107 143 (TDK DVWWOPFED 와 동일영상))
- 오페라에 바친 삶 (프레니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 보너스 DVD

우리 시대의 영원한 미미, 미렐라 프레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

미렐라 프레니는 1935년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태어났으며, 1963년 카라얀의 지휘로 미미를 노래한 이후 이 시대의 대표적인 리릭 소프라노로 명성을 얻었다. 노래뿐 아니라 수더분한 인간미 덕분에 오페라 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다. 올해 75번째의 생일을 맞았던 이 사랑스런 디바를 기념하여 아트하우스에서 마련한 이 특별한 박스에는 이 가수의 가장 중요한 오페라 실황 DVD 두 편과 그의 음악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DVD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의 출세작인 '라 보엠'을 동갑내기 고향친구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공연했던 1988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공연실황으로 담았고, 프레니로 인해 다시금 빛을 본 오페라인 조르다노의 '페도라'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흡을 맞췄던 1993년의 라 스칼라 공연실황으로 수록하였다.

JS 바흐: 마태수난곡 (발레버전)

존 노이마이어(안무)/ 함부르크 발레단



Arthaus DVD 101 511
[3DVDs]

감동스런 발레로 재탄생한 바흐의 마태수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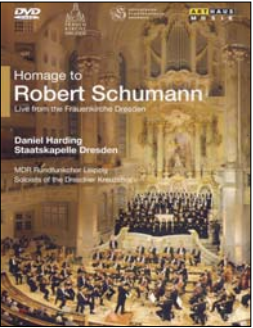
현재 함부르크 발레단의 디렉터 겸 수석안무가로 활약 중인 세계적인 무용가 존 노이마이어는 인류 최고의 교회음악으로 손꼽히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감동적인 발레로 표현해내었다. 이 발레버전의 마태수난곡은 1981년 6월 25일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공연 때마다 크나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본 DVD는 2005년 바덴-바덴 축전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노이마이어 본인이 마지막으로 직접 무대에 섰던 마태수난곡이기도 하다. 페터 슈라이어가 복음사가를 맡고 베르트 바이클, 미초코 시라이 등의 정상급 가수들이 솔로를 맡았던 1980년 성 미카엘리스 교회의 라이브 레코딩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 노이마이어는 일관된 완성도의 공연을 위해 초연무대부터 이 한 가지 레코딩만을 고집해왔다. 무용수들의 표정과 몸짓을 다양한 앵글로 포착한 일반적인 카메라 연출 외에도 무대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 원거리의 고정 카메라 앵글로도 작품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슈만: 교향곡 3번 '라인', 게노베바 서곡, 미뇽을 위한 레퀴엠 외

MDR 방송합창단, 드레스덴 십자가합창단/ 다니엘 하딩/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장엄한 드레스덴 성모 교회에서 펼쳐진 슈만의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

2010년 슈만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드레스덴 성모교회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드레스덴은 슈만이 1844년부터 1850년까지 머물렀던 도시다. 지휘자 세대교체의 가수로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았던 영국 출신의 청년 지휘자 다니엘 하딩이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한 이 특별한 콘서트는 슈만이 드레스덴 시절 남긴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작곡가의 유일한 오페라인 '게노베바'의 서곡,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기초한 합창곡인 '미뇽을 위한 레퀴엠', 헤벨의 시에 곡을 붙인 관현악반주의 합창곡 '밤의 노래', 미완성 상태의 관현악품들인 스케르초와 아벤트무지크의 재구성 버전, 그리고 작곡가의 가장 걸출한 교향곡인 3번 '라인'이 함께 연주되었다. 성모교회의 장엄하고도 화려한 인테리어가 제공하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대단하다.



Arthaus DVD 101 523



Arthaus DVD 101 521

바그너: 리엔치

토르슈텐 케를(리엔치)/ 카밀라 닐룬트(이레네)/ 케이트 알드리치(아드리아노)
안테 예르쿠니카(클로나) 외/ 세바슈티안 랑-레싱/ 베를린 도이치오퍼

위대한 민중의 영웅 리엔치가 가증스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부활하다

5막 오페라 <리엔치>는 명실상부한 바그너 최초의 출세작이었지만, 그는 후일 바이로이트에서 이 작품의 상영금지령을 명하였다. 자존심 강한 그로서는 당시의 유행을 좇아서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 양식을 충실히 모방했던 이 작품이 그리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한 서곡을 비롯하여 후일 바그너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빼어난 선율의 아리아와 합창들을 담고 있기에 이 작품을 아끼는 바그네리언들도 많다. 특히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2010년 베를린 도이치오퍼에 올랐던 필립 슈윙클의 프로덕션은 작품의 기존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놓은 충격적인 해석으로 화제를 모았다. 본 프로덕션에서 14세기의 로마는 제3제국으로 배경을 바꾸었고, 위대한 민중의 영도자 리엔치는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가증스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무대 후면에 투영되는 옛날 기록영화 풍의 화면이나 2층 무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연출기법도 기발하기 그지없다.

[보조자료]

○ <리엔치>는 바그너가 파리에 체류하던 시절인 1840년에 완성한 대작 오페라다. 벌워-리튼의 역사소설 '마지막 호민관, 리엔치'를 토대로 자신이 리브레토를 완성하였고,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마이어베어 풍의 그랜드 오페라 스타일로 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1841년 4월 새로 개관된 드레스덴의 젤퍼오퍼에서 있었던 초연무대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고, 이로 인해 바그너는 작센의 궁정작곡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 14세기 중반 로마의 귀족들에 맞서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실존 인물인 쿨라 디 리엔초의 비극적인 최후를 다뤘다. 오르시니와 콜론나 두 귀족가문의 극심한 알력 속에서 로마 시민들은 비참한 나날을 보낸다. 그들의 폭압을 막은 리엔치는 민중들의 영웅으로 급부상한다. 귀족들은 그의 암살을 노리지만 콜론나의 아들 아드리아노의 밀고로 미수에 그친다. 리엔치는 그들을 용서하지만, 귀족들의 지도자들은 끝내 리엔치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 받은 아드리아노는 리엔치를 배신하고, 계속되는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리엔치에 신물이 난 로마시민들도 마침내 그를 저버린다. 한때 자신을 떠받쳤던 시민들의 돌팔매에 리엔치가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극이 마무리된다. 본 프로덕션에서는 오페라의 원내용과 달리 재기 넘치는 풍자를 통해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를 방불케 하는 형태로 리엔치의 캐릭터가 희화되었다.



Arthaus DVD 101 515

메노티: 노처녀와 도둑, 영매

엘리자베트 횡겐(토드, 플로라)/ 에버하르트 베흐터(밥)/ 마리아 호세 데 비네(모니카) 외
볼프강 렌너트, 아르만도 알리베르티/ 빈 폴크스오퍼

TV용 오페라의 새 지평을 열었던 메노티의 대표 희극과 비극을 함께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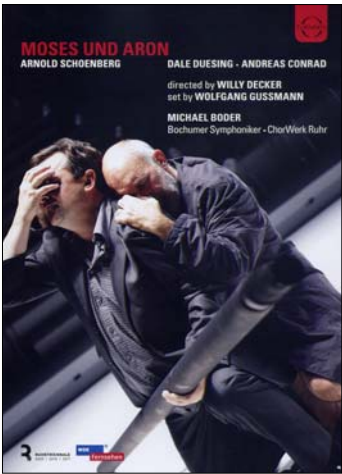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잔 카를로 메노티는 '아말과 밤의 방문자', '아말리아 무도회에 가다' 등을 비롯한 22편의 극음악을 통해 20세기의 주요한 오페라 작곡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는 88올림픽을 기념하여 우리 정부로부터 오페라 '시집가는 날'을 위촉받음으로써 우리나라와 남다른 인연을 맺기도 했었다. 그는 TV용 오페라를 창안함으로써 오페라 역사에 새로운 일획을 그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작곡가의 대표 희극과 비극 각 하나씩을 함께 담은 DVD 역시 1961년과 64년 오스트리아 방송에서 TV 방송용으로 제작했던 프로덕션들을 정성스런 복원작업을 거쳐 수록한 것이다. 칼 뵘의 총애를 받았던 위대한 메조소프라노 엘리자베트 횡겐이 두 작품 모두에서 주역을 맡았고, 바그너 소프라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힐데 코네츨니, 빈 뮤지컬계의 스타였던 올리브 무어 필드, 그리고 불세출의 바리톤 에버하르트 베흐터의 청년시절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흑백화면, 모노]

[보조자료]

○ 희극 <노처녀와 도둑>은 1939년 미국 NBC 방송국의 위촉으로 완성되었다. 현대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 코믹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처녀 미스 토드의 집에 낯선 청년 밥이 찾아온다. 미스 토드와 하녀 레티사는 이 청년의 환철한 용모에 반하여 그를 이집에 머물게 한다. 미스 토드는 밥이 탈옥한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를 위해 돈을 횡령하고 술을 도둑질하기에 이른다.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밥은 토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화가 난 토드가 보안관에게 신고하러 집을 비운 사이, 밥과 레티사는 토드의 집을 탈탈 털어서 도망치고 만다.

○ 2막의 오페라 <영매>는 가벼운 내용을 주로 다뤘던 메노티가 처음으로 심각한 주제에 도전했던 작품이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위촉으로 완성되었으며, 1946년 동대학을 통해 초연되었다. 메노티는 1951년 이 작품을 영화로도 재구성하였다. 플로라 부인은 죽은 자의 영혼과 교감한다는 영매(무당)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자녀들과 공모하여 사기행각을 벌인단 인물이었다. 어느 날 플로라는 손님들 앞에서 초혼의 연기를 벌이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목덜미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공포에 빠진다. 강박증에 사로잡힌 플로라는 자신이 잠든 사이 커튼 뒤에 숨어든 병어리 아들 토비를 귀신으로 착각하고 권총을 난사하여 살해하고 만다.



Euroarts DVD 2058178

쇤베르크: 모세와 아론

데일 듀싱(모세)/ 안드레아스 콘라트(아론)/ 일제 페렌스(젊은 여인)/ 피누르 바르나손(청년) 외
미카엘 보더/ 보훔 심포니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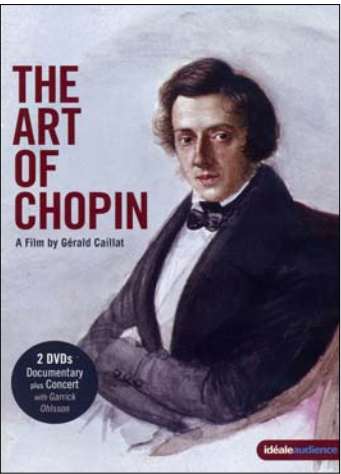
최고의 인기 연출가 빌리 뎡커가 형상화한 충격 그 자체의 오페라 프로덕션

2009년 루르트리엔날레 기간 중에 펼쳐졌던 충격적인 공연상황이 DVD로 출시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구약의 출애굽 당시 모세와 그의 형 아론 사이의 종교적 갈등을 다룬 쇤베르크의 미완성 오페라 걸작이다. 쇤베르크는 1932년에 2막까지 마무리했지만, 마지막 3막은 그가 사망했던 1951년 까지도 미완성상태로 남았다.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이 작곡가가 자신의 모든 창조적 역량을 집중했었던 작품이기에, 미완성 작품임에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황금 송아지 앞에서 펼쳐지는 광란의 축제장면(2막3장)은 독립곡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로, 최고의 연출가 중 한 사람인 빌리 뎡커는 난교와 폭력으로 점철된 유희농자한 지옥도를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다면의 이동 무대를 적극 활용한 입체적인 무대 연출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보조자료]

○ 쇤베르크는 13이라는 숫자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렸다. 본디 아론의 알파벳 표기는 Aaron이 일반적이지만, 'Moses und Aaron'이 모두 13개의 알파벳이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이틀을 'Moses und Aron'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오페라의 내용은 구약 출애굽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세는 신의 계시를 받고 형 아론의 입을 빌려서 이집트의 유대민족에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유일신의 개념을 강력히 설파한다. 유대인들은 크게 술렁이지만, 모세가 행하는 여러 이적들을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던 40일 동안 유대민족은 아론을 부추겨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제전을 펼친다. 광란이 잦아질 무렵 모세가 나타나 송아지 상을 부수고 아론을 꾸짖지만, 아론 역시 자신의 논리로 모세를 반박한다. 모세는 실망하여 십계명판을 부숴버린다. 이후 3막의 대본은 아론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본 공연에서는 2막까지만 무대에 올랐다.



Euroarts DVD 3078948
[2DVDs]

쇼팽: 피아노협주곡 1, 2번 + 다큐멘터리

게릭 올슨(pf)/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와 콘서트 실황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작곡가를 사랑하는 음악애호가들이 놓쳐서는 안 될 값진 영상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큐멘터리 'The Art of Chopin'은 쇼팽 콩쿠르 우승자들인 폴리니, 아르헤리치, 침메르만, 올슨을 비롯하여 키신, 포고렐리치, 다비도비치, 루빈스타인, 리히터, 페라이어, 유자왕, 안데르체프스키 등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쇼팽 음악의 단편들과 함께 이 작곡가의 길지 않은 인생여정과 음악세계를 다루었다. 옛된 소년 시절의 키신이나 쇼팽 콩쿠르 우승 무렵의 폴리니, 침메르만, 아르헤리치, 올슨 등의 젊은 시절의 연주 모습을 만나보는 즐거움이 대단하다. 다른 한 장의 DVD에는 197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게릭 올슨이 독주를 맡은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2번의 전곡 연주실황이 수록되었다. 2009년 8월 29일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에서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협연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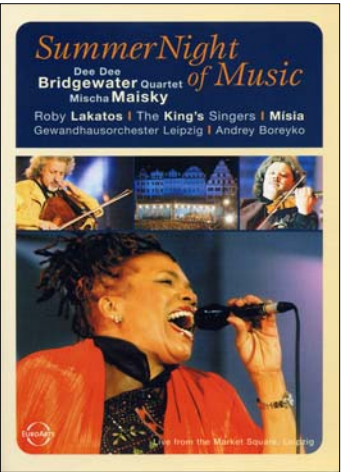
Summer Night of Music

디디 브리지워터, 로비 라카토슈, 킹스 싱어즈, 미시아, 미샤 마이스키 외

안드레이 보레이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모든 장르를 망라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양 분야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재즈계의 슈퍼디바 디디 브리지워터, 집시 피들 음악의 황태자 로비 라카토슈, 포르투갈 파두 음악의 인기 스타 미시아, 스페인 플라멩코 아티스트인 마이테 마르틴과 벨렌 마야, 반도네온 연주자 로돌포 메데로스, 아카펠라의 지존 킹스 싱어즈, 최고의 인기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가야르도-도마스, 그리고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2003년 5월 라이프치히의 유서 깊은 마켓 스퀘어에 모여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음악의 향연을 펼쳤다. 재즈, 오페라, 집시음악, 플라멩코, 아르헨티나 탱고 누에보, 파두, 아카펠라,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넘나들며 2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한여름 밤의 뜨거운 음악 축제를 담은 이 영상물은 모든 종류의 음악애호가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Euroarts DVD 2053299



Euroarts DVD 2072528
[2DVDs]

피츠너: 팔레스트리나

크리스토퍼 벤트리스(팔레스트리나)/ 팔크 슈트룩만(보로메오)/ 피터 로즈(교황)/
미카엘 폴레(모로네)/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이기노) 외/ 시몬 영/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강렬한 색채와 감각적인 연출로 부활한 후기낭만 오페라의 마지막 걸작

한스 피츠너는 쇤베르크 그룹의 새로운 음악기조가 유럽 음악계를 강타했던 시절에도 독일 후기낭만주의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했던 보수성향의 작곡가였다. 작곡가 스스로 '음악적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던 오페라 <팔레스트리나>는 바그너가 추구했던 종합예술의 이상을 충실히 좇았던 작품인 동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선배 작곡가의 일화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을 확실히 드러내었던 일생의 역작이었다. 본 DVD는 2009년 7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에서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무려 38명의 독창자와 합창단, 그리고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하는 이 대작의 위용을 우수한 화질과 음향으로 담아내었다. 유럽 오페라계를 호령하고 있는 마에스트라 시몬 영의 호방한 지휘, 크리스티안 슈튀클의 강렬한 색채의 무대미술과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진 이 프로덕션은 이 위대한 걸작에 대한 오페라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줄 것이다.

[보조자료]

○ 피츠너는 음악학자 암브로스가 쓴 '음악사 제4권' 속의 르네상스 폴리포니 종교음악의 대가 조반니 피에를루이지 다 팔레스트리나에 관한 일화를 읽고 이 오페라를 착안하였다. 오페라는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던 1563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당시 가톨릭계에서는 과도하게 기교적으로 변모된 폴리포니 종교음악에 대해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고,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팔레스트리나는 자신의 걸작 '교황 마르첼리' 미사를 제출함으로써 폴리포니 전례음악의 우수함을 설파했고, 그로 인해 폴리포니 종교음악에 대한 비판이 사라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이 작품의 토대가 되었다.

○ 르네상스 폴리포니 음악이 점차 쇠락해가던 무렵 팔레스트리나는 창작에 대한 열의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하지만 죽은 아내와 과거의 위대한 선배작곡가들의 영혼이 차례로 그를 격려한 뒤, 팔레스트리나는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미사곡을 써내려간다.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폴리포니 전례음악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지만, 반목하는 각 진영들의 알력 속에서 회의는 소란스런 소동으로 끝나고 만다. 그로부터 며칠 후 팔레스트리나는 교황청에서 새롭게 연주된 자신의 미사 신작에 대한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교황은 그를 교황청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임명하고, 대중들은 음악의 구원자로서 그를 칭송한다. 사람들의 환호가 사라지고, 팔레스트리나는 홀로 겸손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Euroarts DVD 2051728

베르디: 팔스타프

암브로조 마에스트리(팔스타프)/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펜톤)/ 바르바라 프리톨리(포드부인)/
인바 몰라(나네타)/ 로베르토 프론탈리(포드) 외/ 리카르도 무티/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베르디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여 최고의 오페라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늙은 동보기사 존 팔스타프의 좌충우돌과 그를 골려주는 주위 인물들의 소동이 어우러진 유쾌한 오페라 <팔스타프>는 노대가의 마지막 창작열을 녹여낸 위대한 음악적 정수를 보여준다. 본 DVD는 2001년 베르디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여 작곡가의 고향 부세토에서 펼쳐졌던 특별한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다. 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봉을 잡은 본 공연은 최고의 오페라 스타들로 구성된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본 공연의 큰 성공 이후 새로운 대형 바리톤의 출현으로 각광받았던 암브로조 마에스트리가 타이틀 롤을 맡았고, 중견 저음가수 로베르토 프론탈리,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그리고 바르바라 프리톨리, 인바 몰라,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 등의 특급 디바들이 한 무대에 등장하는 호사를 맛볼 수 있다. 1913년 같은 장소에서 펼쳐졌던 작곡가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무대미술과 의상의 매력도 각별하다.

[보조자료]

○ 80세를 넘긴 베르디가 작곡한 <팔스타프>는 세상을 바라보는 노작곡가의 통찰력과 예술적인 완성도가 극한까지 이른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평생토록 역사와 인생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헌신했던 베르디가 마지막 작품을 이토록 유쾌하고 호탕한 희극으로 마무리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보다 극적으로도 더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은 한다.

○ 베르디의 고향 부세토의 테아트로 베르디는 328석 정도의 아담한 규모의 오페라 극장이다.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는 이 극장의 작은 오케스트라 박스 사이즈를 감안하여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반주를 맡았고, 결과적으로 이 프로덕션은 체임버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아기자기하고도 섬세한 매력을 갖추게 되었다.

○ 쟁쟁한 명성의 오페라 스타들이 대거 동원된 이 프로덕션에서 가장 출중한 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풍부한 성량과 자신감 넘치는 연기로 타이틀 롤을 열연한 암브로조 마에스트리다. 공연당시 불과 31세에 불과했던 이 젊은 바리톤은 이 프로덕션을 통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차세대 대형 저음가수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Euroarts DVD 2056818

레하르: 즐거운 미망인

페트라 마리아 슈니처(한나)/ 보 스코부스(다닐로)/ 리디아 토이처(발렌시앵느)
올리버 링겔한(로시용) 외/ 만프레드 호넵/ 드레스덴 슈타츠오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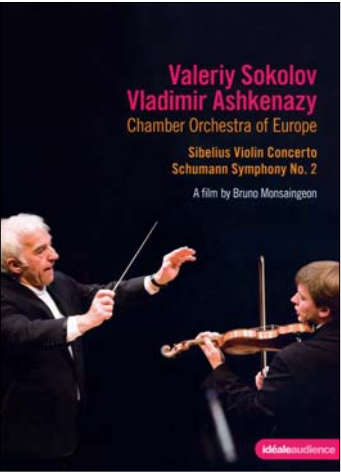
화려한 춤과 친근한 선율의 노래로 가득 채워진 빈 오페레타의 정수

19세기 말 주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등의 거장들이 사라진 이후 침체에 빠졌던 빈 오페레타의 전통은 헝가리 군악대장 출신의 작곡가 레하르에 의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레하르를 인기 작곡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출세작이 바로 1905년 빈에서 초연되었던 〈즐거운 미망인〉이었다. 2007년 드레스덴 슈타츠오퍼의 프로덕션을 담은 본 DVD는 우아한 빈 왈츠와 파리의 향락적인 밤무대 음악, 그리고 향토색 강한 동유럽의 전통 춤곡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오페레타의 유쾌 발랄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거물급 바리톤 보 스코부스와 인기 급상승 중인 바그너 히로인 페트라 마리아 슈니처가 두 주인공을 열연하였고, 늘씬한 몸매와 미모를 자랑하는 리디아 토이처의 발렌시앵느도 매력만점이다. 특히 흥겨운 춤과 노래가 이어지는 3막의 서두는 퇴폐적이고도 향락적인 파리의 밤 문화를 실감나게 그려내었다.

[보조자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서 태어난 레하르는 〈즐거운 미망인〉에서 빈 오페레타의 전통에 동유럽적인 색채를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한나와 다닐로는 발칸의 몬테네그로를 모델로 하는 폰테베드로라는 가상의 나라 사람들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2막에서는 동유럽 풍의 춤곡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나와 다닐로의 사랑이 다시 맺어지는 장면에서는 우아한 비엔나 왈츠가 흘러나오는데, 그 선율이 바로 유명한 '메리 위도우 왈츠' 다.

○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받은 폰테베드로의 미망인 한나 글라바리가 파리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폰테베드로 정부는 자칫 해외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그녀의 상속금을 지키기 위해 모종의 공작을 펼치고, 그의 재산을 노리는 파리의 한량들이 계속 그녀의 주위를 맴돈다. 한나의 옛 연인이었던 다닐로 백작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자칫 돈 때문이라는 오해를 들을까봐 그의 속내를 내보이지 못한다. 우여곡절의 해프닝이 연속된 이후 마침내 다닐로의 진심을 한나가 알게 되고 둘은 행복한 결합을 한다.



Idealaudience DVD 3078748

시벨리우스: 연인, 슬픈 왈츠, 바이올린 협주곡

슈만: 교향곡 2번

발레리 소콜로프(vn)/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

젊은 비르투오조와 노련한 마에스트로의 절묘한 만남

2008년 12월 파리 외곽의 시테 드 라 무지크에서 있었던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콘서트 실황으로, 대표적인 지한파 마에스트로로 우리에게 친숙한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지휘봉을 잡았다.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시벨리우스 특유의 아련한 서정성이 담긴 관현악곡 '연인'으로 시작된 이 콘서트는 같은 작곡가의 바이올린협주곡으로 정점을 이룬다. 2005년 에네스쿠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유럽 음악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신예 발레리 소코로프가 독주를 맡아서 화려한 기교와 감미로운 서정을 맘껏 뽐낸다.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한 슈만의 교향곡 2번에서는 프랑스와 룰뢰(ob), 리처드 호스포드(cl), 조나선 윌리엄스(호른) 등의 특급 솔리스트들로 편성된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관악파트가 빼어난 활약을 보여준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DVD 702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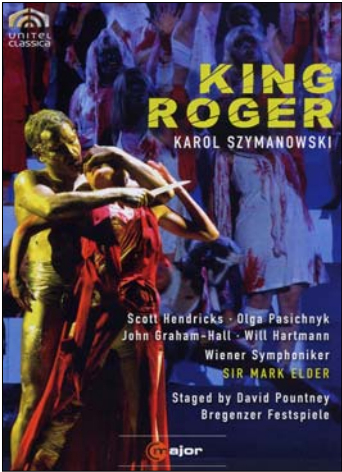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콘서트

- 슈베르트: 6개의 독일춤곡(베베른 편곡)
- 요제프 슈트라우스: 여자의 마음 폴카, 델리리엔 왈츠, 뒤죽박죽 폴카
-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르농쿠르와 빈 필하모닉이 함께 빛어낸 슈베르트의 '위대한' 교향곡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마에스트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개막콘서트를 지휘하였다. 베베른이 근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6개의 독일춤곡과 형의 높은 명성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들로 구성된 전반부 프로그램은 새로운 레퍼토리들에 대한 이 노거장의 부단한 탐구정신을 보여준다. 콘서트의 후반부는 '그레이트'라는 부제에 걸맞은 스케일과 완성도를 갖춘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장식되었다. 아르농쿠르의 개성적인 심미안과 빈 필하모닉이 자랑하는 고품격 사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연주는 이 교향곡이 왜 '그레이트' 교향곡임을 확인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C-Major DVD 702808

시마노프스키: 로게르 왕

스캇 헨드릭스(로게르), 올가 파시츠닉(룩산나), 존 그레이엄-홀(에드리시), 빌 하르트만(양치기) 외
마크 엘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폴란드 방송합창단

성과 속의 치열한 갈등을 다룬 20세기 전반기의 위대한 오페라 걸작

1926년에 초연되었던 시마노프스키의 3막 오페라 〈로게르 왕〉은 한동안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비운의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20세기 전반기의 가장 위대한 오페라의 하나로 칭송받고 있다. 기독교의 신성과 술의 신 박카스로 대변되는 육체적 쾌락간의 치열한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1막 도입부의 전례한창, 2막의 양치기 추종자들의 춤, 3막의 대단원과 같은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특히 빼어나다. 본 영상은 2009년 브레겐츠 페스티벌 기간 중 호반무대가 아닌 축전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가 연출을 맡은 본 프로덕션은 간결한 무대세트 위에 변화무쌍한 조명을 투영함으로써 각 장면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으며, 주역 가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과 집승의 두개골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소품들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보조자료]

○ 카를 시마노프스키는 1882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폴란드 귀족가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젊어서 바그너와 R 슈트라우스에 경도되었으며, 카를로비치 등과 함께 젊은 폴란드를 결성하여 쇼팽 이후 공백과도 같았던 이 나라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초기에는 독일 후기 낭만파와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한 때는 아랍과 동양문화에 몰입하면서 전통적인 서양음악의 조성체계를 탈피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다시 조성음악으로 회귀했으며 자국의 민속음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4편의 교향곡과 2편의 바이올린협주곡, 오페라 ‘로게르 왕’ 과 종교합창곡 ‘스타바트 마테르’ 등이 그의 대표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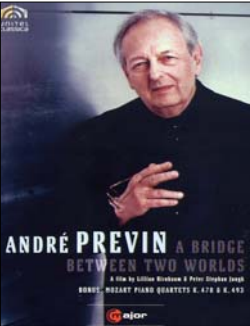
○ ‘로게르 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페라의 배경은 12세기 시칠리아 왕국이다. 기독교도 왕인 로게르는 이 나라 민중들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던 양치기를 궁전으로 소환한다. 사제들은 그를 죽이라고 요구하지만, 로게르는 그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지만 왕비 룩산느는 양치기를 따라서 궁궐을 떠나게 되고, 로게르와 그의 고문인 에드리시는 양치기를 쫓게 된다. 그들은 깊은 밤 고대 그리스 신전의 폐허에서 룩산느를 다시 만나지만, 이미 그녀는 양치기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있다. 양치기는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였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의 추종자들은 쾌락의 춤판을 펼친다. 로게르는 쾌락의 유혹에 크게 갈등하지만, 끝내 유혹을 이겨내고 떠오르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다.



C-Major DVD 702508



C-Major DVD 703008



C-Major DVD 703208

200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콘서트

- 라벨: 우아하고 감성적인 왈츠
- 바르톡: 피아노협주곡 1번
- 스트라빈스키: 불새전곡 (1910년 버전)

다니엘 바렌보임(pf)/ 피에르 볼레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에르 볼레즈와 다니엘 바렌보임, 두 거인들의 강렬한 협연

2008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지휘와 작곡 양 분야 모두에서 현존 최고의 거장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피에르 볼레즈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막콘서트의 프로그램은 거장의 가장 확실한 장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세기 초반의 대표관현악 레퍼토리들로 편성되었다. 라벨의 ‘우아하고 감성적인 왈츠’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정교하게 펼쳐나가는 노대가의 해안과 감각은 여전히 싱그럽기 그지없다. 바르톡의 피아노협주곡 1번에서는 또 한 명의 거장이 합세하였다. 평소 볼레즈에 대한 두터운 존경심을 드러내왔던 다니엘 바렌보임이 독주자로 나서서 이 콘서트의 중량감을 한층 더 배가시켰다.

헨델: 메시아 (무대연출버전)

수잔 그리턴, 코르넬리아 호락(sop)/ 베윤 메타(alt)/ 리처드 크로프트(e)/ 플로리안 뵉슈(bass)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시/ 앙상블 마테우스

최고의 연출가 클라우스 구트, 메시아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다

오라토리오 중 일부 작품은 무대와 연기를 더하여 오페라와 같은 형태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한다. 두 장르가 극음악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기에 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헨델의 ‘메시아’는 이러한 시각화가 가장 난해한 오라토리오다. 메시아의 출현과 사역에 관한 신구약 성경 구절들로 단편적으로 구성된 리브레토만으로는 구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의 오페라 연출가 중 한 사람인 클라우스 구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작품의 시각화에 도전하였다. 직접적인 예수의 이야기 대신 세 남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희로애락이 그 내용을 대신한다.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임재에 관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무대에서 전개되지만, 각 상황과 리브레토의 성경구절은 절묘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낸다. 일급 가수들로 구성된 독창진의 열연과 열창, 그리고 바로크 오페라 스페셜리스트인 지휘자 스피노시의 개성적인 해석도 이 독특한 프로덕션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다큐멘터리 ‘앙드레 프레빈 – 두 세계를 잇는 다리’

모차르트: 피아노사중주 KV478, 493
앙드레 프레빈(pf)/ 라이너 쿨(vn)/ 권터 자이페르트(va)/ 프란츠 바르톨로미(vc)

앙드레 프레빈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퀸트

2010년 81번째 생일을 맞이한 앙드레 프레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던 팔방미인 아티스트다. 재즈 피아니스트로 음악계에 입문했으며, 4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특급 영화 음악가였다. 지휘자로 변신 이후 11년간 런던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를 맡으면서 이 악단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클래식 작곡가로도 오페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비롯한 화제작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본 DVD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이 특별한 아티스트의 인생여정과 현재의 삶을 담았다. 한때 부부였으며 이혼 후에도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화배우 미아 패로와 바이올리니스트 안느 소피 무터가 특별 출연도 흥미롭다. 2000년 1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빈 필의 악장과 첼로 수석인 라이너 쿨, 프란츠 바르톨로미 등과 협연했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퀸트 KV.478과 493의 전곡 연주 영상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유럽 오페라 하우스 명연시리즈’

유럽 일급 오페라 하우스의 최신 공연 실황 DVD를 충실한 한글자막과 함께 소개합니다
최고의 오페라 무대에 갈급했던 국내 오페라 애호가들의 갈증을 본 시리즈가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의 중요성

오페라는 인류가 남긴 최고의 예술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며 또한 그것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높은 안목과 교양을 필요로 하는 장르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음악과 미술, 그리고 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말 그대로의 종합예술이며, 인간의 지성과 감성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러한 오페라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을 제대로 즐기기는 쉽지 않았다. 척박한 국내 클래식 공연환경은 오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가무에 공나트 무대에 올려지는 공연들도 그 수준이 그리 높지 못했다. 과거에는 시각적인 체험이 배제된 음반 중심의 감상만이 가능했지만, 높은 편의성을 자랑하는 DVD가 대중화되면서 구미의 수준 높은 공연들을 우리의 안방에서 눈과 귀로 맘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오페라 공연 감상은 다만 음악 특히 가수들의 노래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오페라는 음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21세기는 연출과 디자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최근 구미 각지의 일급 오페라 극장들의 무대에서 올려지는 연출과 디자인의 세련됨은 가히 충격적일 정도다. 이제 가수와 지휘자들의 명성 못지않게 오페라 연출자들과 미술감독들의 역량도 오페라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로버트 카슨, 빌리 덩커, 페터 콘비츠니, 그레이엄 비크, 데이비드 맥비카, 루이지 피치 등등의 스타급 연출가들이 오페라 애호가들 사이에서 친근한 이름이 되었다.

본 시리즈의 기획의도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오페라 영상물들이 주로 미국의 오페라 극장 중심이었기에 오페라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명문 극장들의 일류 프로덕션들은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소개되지 못했었다. 가수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른바 메이저 레이블에 소속된 성악가들이 아니라면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시리즈는 지금 유럽의 일급 극장에서 올려지고 있는 최고의 무대들을 엄선하여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야심찬 의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Arthaus, TDK, OpusArte, Dynamic, C-major와 같은 유수의 클래식 DVD 전문 레이블들을 통해 유럽의 최근 오페라 프로덕션들이 발 빠르게 DVD로 상품화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도 이들의 최신 영상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나, 한글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수입완제품이라는 한계로 인해 오페라에 관심이 많은 이들도 섣뜻 이들 수입 영상물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시리즈는 유럽의 최신 오페라 프로덕션을 담은 일급 DVD들을 충실한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라이선스 DVD로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의 오페라 선진국들의 극장들이 망라될 예정이며, 세계 정상급 연출가들의 대표적인 프로덕션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가수, 디자이너, 지휘자들의 모습 또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 전문 컬럼니스트 박종호와의 공동작업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장벽을 깨고 국내의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오페라의 참 맛을 알리기 위해, <불멸의 오페라>의 저자이자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오페라 전문가 박종호가 직접 라이선스 대상 영상들을 선정했으며, 전편 모두에 세심하게 제대로 번역된 충실한 한글 자막이 제공된다. 또한 시공사의 과감한 허락으로 <불멸의 오페라> 등에 올려진 해설이 그대로 내지에 수록되기에, 이 한 장의 DVD만 있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물론, 그 프로덕션의 묘미 역시도 완전히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리즈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작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들도 과감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오페라 팬들의 안목이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더불어 국내 오페라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우선 시리즈의 1차 발매분으로 선택된 5종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오펜바흐의 <호프만 이야기>, 마스네의 <타이스>,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세니에>,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 레하르의 <즐거운 미망인>이 그들이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5 타이틀씩 지속적으로 추가발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각각의 영상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타이틀별 해설자료 [1차분: 5타이틀 제작]



ADVD-007 [2 DVDs]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지막 내 곁에 남는 건 예술”
01. 오펜바흐의 <호프만 이야기>
~: 세계는 극장이며 극장 속에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로버트 카슨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데에다가 앞뒤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까지 붙는 길고 복잡한 작품이다. 게다가 각 막은 원래 로마, 뮌헨,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하며 완전히 다른 세트에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그야말로 서너 개의 작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버금가는 아이디어와 수고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 막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흘러야 하며 관통하는 메시지까지 있어야만 일류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로부터 많은 연출가들이 <호프만의 이야기>에 자신의 재능을 쏟아 부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시도와 기발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으며, 발터 펠젠슈타인을 필두로 존 슬레징어, 파리스 쉼로, 루이 에를로 등 천재 연출가들의 이름이 망라된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버트 카슨의 프로덕션이다. 그는 이미 적지 않은 영상물로서도 이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의 <호프만의 이야기>는 이 오페라들 중에서도 최고일 뿐 아니라, 그의 많은 프로덕션 중에서도 최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호프만의 이야기>에는 카슨의 대표적인 기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대를 극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무대 위에 극장을 또 만들어서 무대 속의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실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속의 극을 본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즉 관객을 시종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그의 수법으로서, 이것은 21세기 오페라 연출의 특징이기도 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아니라 드라마는 모두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벌어진다.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의 술집은 바로 오페라하우스 안의 바다다. 각 장면 속의 극장 모양도 모두 기발하게 다르다. 이 오페라의 남녀 주인공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각 막에 나오는 악한이다. 여기서는 각 막을 악한이 조종하고 있으니 그는 오페라 제작에 중요한 인물이다. 즉 1막에서는 무대미술가, 2막에서는 지휘자, 3막에서는 연출가로 등장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그는 프로덕션의 스폰서로서 악한을 보여준다. 파리 바스티유 극장에서 올라진 이 프로덕션에서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성악가들이 출연하고 있으니, 올랑피아 역에 데지레 랑카토레, 안토니아 역에 루스 앤 스웬슨, 줄리에타 역에 베아트리스 우리아 몽종이 그들이다. 반면 네 개의 악역을 우리시대 최고의 성격파 베이스바리톤인 브린 터벨이 혼자서 다 맡아 열연한다. 호프만 역도 역시 최고급 테너인 닐 쉬코프의 열창, 열연으로 보여준다.



ADVD-008

“신성과 애욕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02. 마스네의 <타이스> ~: 충격적인 시각으로 감동을 보여주는 스테파노 포다의 걸작

마스네의 <타이스>는 한 여인의 신앙적인 성숙과 더불어 한 남자의 심정적 변화를 그려낸 프랑스 오페라의 수작이다. 음악도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하는 것은 연출가들에게 남겨진 중요한 몫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많은 연출들이 이런 화두를 관통할 만한 무대를 보여주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런 연출적인 숙제에 대한 충격적이고도 엄숙한 해답을 내놓은 이가 있으니 바로 연출가 스테파노 포다다. 그는 최근 유럽,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올려지는

무대마다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젊은 기대주이다. 20세기 말까지 새로운 오페라 무대의 연출들이 주로 독일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남유럽의 연출은 과거의 전통적인 수법에 머무르는 인상이 짙었다. 이에 그런 선입관을 일시에 무너뜨린 연출가가 바로 포다로서, 그의 많은 연출들은 지금 유럽의 각 오페라하우스에서 마치 잉크처럼 번져가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는 그의 대표작이 마스네의 <타이스>다. 여기에는 포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몰량, 많은 엑스트라, 과감한 안무, 화려한 의상, 거대한 무대, 상징적인 형상들, 대규모 무대의 잦은 무대 변환 등을 모두 보여주어서 처음 그의 무대를 접하는 사람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그의 무대들은 외형적인 화려함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원작과 음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자신만의 해석을 토대로 하여 완전히 서사적인 연출을 성공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포다는 마스네의 음악을 살려주고 프랑스의 원작의 감동을 전달하여, 관객들에게 시각과 청각이 혼연일치된 프로덕션을 선사한다. 포다의 <타이스>가 올려진 오페라하우스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레조 극장으로서, 최근 이탈리아의 가장 떠오르는 극장이다. 최근에 완전한 대보수를 통하여 거듭난 이 극장은 기존의 이탈리아의 메인 극장들을 단번에 위협하는 극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실체를 이번 영상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악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에 도전한 소프라노는 지금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새로운 정상에 등극한 바르바라 프리틀리다. 또한 지금 국제적으로 크게 각광받는 바리톤 라도 아타넬리가 아타나엘을 맡아서, 베이스와는 또 다르게 젊고 강렬한 가창을 들려주고 있다.



ADVD-009

신장세로서 기존 이탈리아의 유명 극장들, 즉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 피렌체의 시립 극장 등의 아성을 다 물리친 이탈리아의 정상급 극장이다. 이 극장의 연주력에 견줄만한 곳은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 정도다. 볼로냐 극장을 오늘 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에는 오랫동안 이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있었던 두 지휘자의 공헌이 있었으니, 바로 리카르도 샤이와 다니엘레 가티다. 둘은 오페라 뿐 아니라 독일 낭만 교향곡에 있어서도 세계 정상이니, 그들의 실력이 볼로냐 극장의 탄탄한 수준을 만든 것이다. 매년 벌어지는 볼로냐 극장의 일본 공연에서도 가장 인기 높았던 것이 <안드레아 세니에>로서 명 연출가 잔카를로 델 모나코의 작품이다. 그의 무대는 사실적이고 고전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액자식 무대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서사적인 스토리를 넣는 것이 특징이다. <안드레아 세니에>에서도 델 모나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속에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보여준다. 즉 제1막의 회화화된 주변 인물들의 분장이나 제4막의 감옥의 거대한 창살 같은 것들이다. 피날레에 두 주인공 남녀가 단두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창살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죽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가사를 시각화한 감동적인 장면이다. 이 공연에는 21세기 오페라계를 대변할 최고 성악가들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 역할에서 현역 최고의 기량을 가진 자들이니, 마달레나 역에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 세니에 역에 테너 호세 쿠라 그리고 카를로 역에 바리톤 카를로 구엘피 등이 그들이다. 지휘 역시 이탈리아 오페라의 극적인 해석에 재능을 보이는 카를로 리치가 맡았다.

“전부를 가진 연적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는 여인”

04.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

~: 베네치아를 상징적으로 꾸민 피에르 루이지 피치 최고의 대표작

폰키엘리의 뛰어난 오페라 <라 조콘다>는 연주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남녀 각 성부를 대표하는 6명의 주역이 동원되는데, 그들은 소프라노(조콘다),



ADVD-010 [2 DVDs]

메조소프라노(라우라), 알토(치에카), 테너(엔초), 바리톤(바르나라), 베이스(알버제) 등이다. 이들 배역은 모두 어려운 역이며, 중요한 아리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두 명의 중요한 라이벌 여인인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그리고 테너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이들 3인은 드라마틱한 목소리의 질감과 대단한 성량을 요구하는 어려운 역할이다. 이번 프로덕션은 에스파냐의 리세우 극장의 공연 실황으로서, 최근 떠오르는 이 극장의 위력을 보여준다. 그 동안 우리에게 유럽의 오페라계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의 6대 강국으로 대표되었지만, 최근에 여기에 새롭게 끼여든 메이저 오페라 리그가 에스파냐다. 에스파냐는 마드리드의 레알 극장, 발렌시아의 소피아 왕비 예술 공연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프로덕션을 보여주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유서 깊은 리세우 대극장이다. 이 극장의 대표적인 프로덕션인 <라 조콘다>는 또한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피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연출가 중 한 명이며,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미 지나간 젊은 날의 낡은 연출들에 굳이 우리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그의 프로덕션들은 수준의 편차가 있다. 어떤 작품들은 지나치게 평범하고 어떤 무대들은 평이하다. 아마 아레나 디 베로나의 지나간 <아이다>가 영상물로 나오지 않는 한, 그의 대표작은 이 <라 조콘다>일 것이다. 지극히 단순화된 형태에 몇몇 상징적인 색채만을 쓴 것은 그의 특징인데, 그는 베네치아를 단 세 가지 상징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곤돌라, 다리, 그리고 우물이다. 다만 인물들의 의상이 단순한 몇몇 원색으로 표현된 것은 아쉽지만, 세트와 의상의 고급스러운 마감처리는 도리어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한다. 하였다. 이 오페라의 압권인 <시간의 춤> 역시 특유의 안무로서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다. 성악적으로 어려운 이 작품에 등장한 가수들은 대부분 일류다. 소프라노 데보라 보이드, 메조소프라노 엘라자베타 피오릴로의 가창은 대단히 뛰어나며, 테너 리처드 마기슨의 뽐어내는 듯한 힘찬 고음도 인상적이다. 정상의 바리톤 카를로 구엘피와 베이스 카를로 콜로바라도 최고급 목소리를 들려준다.



ADVD-011

죽어의 느낌과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잘 숙지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자막은 아마 우리나라 오페라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헬무트 로너의 프로덕션은 오페레타 특유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다. 그는 작품 속 웃음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터뜨리고 있으며, 더불어 중요한 음악적 포인트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관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디자이나 로프 강겐파스는 백여 년 전 아르누보 시대의 파리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하고 환상적인 느낌이 주도록 무대 미술과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비록 오페레타이지만 두 명의 대형 오페라 남성 스타들이 투입되어 작품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톤 로드니 길프리와 테너 요트로 베찰라다. <돈 조반니>나 <피가로의 결혼>의 백작 등 카리스마 넘치는 대형 바리톤 길프리는 이 역할에서 자신이 가진 성악적인 매력은 물론 신체적 매력도 동원하여 진정 멋진 다닐로를 연기한다. <리골레토>나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같은 낭만적 주인공을 잘 부르는 베찰라는 여기서 비록 조연이지만 성악적으로 중요한 카미유 역을 맡아서 특유의 미성을 유감없이 들려준다. 두 명의 남자가수에 밀리는 듯 하지만 한나 역의 다그마르 쉘렌버거는 지금까지의 흔하던 ‘나이 지긋한 한나’가 아닌 한창 여성성이 피어나는 젊은 미망인을 잘 소화한다. 발렌시아는 역의 우테 그레페르 역시 인상적인 젊은 부인을 보여준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는 중부 유럽의 중요한 프로덕션을 올리는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 극장이다. 이 프로덕션은 이곳의 대표적 레퍼토리일 뿐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울려지는 가장 주목할 <즐거운 미망인>이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프란츠 벨저외스트는 열정적이고 정확한 지휘로 무대를 이끌며, 마지막에는 춤까지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유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05. 레하르의 <즐거운 미망인>

~: 취리히 오페라의 힘을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코미디

요한 슈트라우스와 함께 빈 오페레타의 세계의 양대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하르의 대표적 명작이 <즐거운 미망인>이다. 이 작품은 즐거운 스토리, 흥미진진한 전개, 아름다운 음악, 배꼽 잡는 개그, 그리고 훌륭한 교훈과 가슴 뭉클한 감동 등 오페레타가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수작이다. 하지만 이렇게 독어 대사가 많은 빈 오페레타의 묘미를 우리가 제대로 즐긴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레치타티보도 아닌 대사로 진행되는 언어 장벽 때문이다. 이것을 타개할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로 번역된 공연이 아니라, 완벽한 한글 자막의 지원이다.

죽어의 느낌과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잘 숙지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자막은 아마 우리나라 오페라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헬무트 로너의 프로덕션은 오페레타 특유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다. 그는 작품 속 웃음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터뜨리고 있으며, 더불어 중요한 음악적 포인트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관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디자이나 로프 강겐파스는 백여 년 전 아르누보 시대의 파리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하고 환상적인 느낌이 주도록 무대 미술과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비록 오페레타이지만 두 명의 대형 오페라 남성 스타들이 투입되어 작품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톤 로드니 길프리와 테너 요트로 베찰라다. <돈 조반니>나 <피가로의 결혼>의 백작 등 카리스마 넘치는 대형 바리톤 길프리는 이 역할에서 자신이 가진 성악적인 매력은 물론 신체적 매력도 동원하여 진정 멋진 다닐로를 연기한다. <리골레토>나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같은 낭만적 주인공을 잘 부르는 베찰라는 여기서 비록 조연이지만 성악적으로 중요한 카미유 역을 맡아서 특유의 미성을 유감없이 들려준다. 두 명의 남자가수에 밀리는 듯 하지만 한나 역의 다그마르 쉘렌버거는 지금까지의 흔하던 ‘나이 지긋한 한나’가 아닌 한창 여성성이 피어나는 젊은 미망인을 잘 소화한다. 발렌시아는 역의 우테 그레페르 역시 인상적인 젊은 부인을 보여준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는 중부 유럽의 중요한 프로덕션을 올리는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 극장이다. 이 프로덕션은 이곳의 대표적 레퍼토리일 뿐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울려지는 가장 주목할 <즐거운 미망인>이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프란츠 벨저외스트는 열정적이고 정확한 지휘로 무대를 이끌며, 마지막에는 춤까지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 인형: 사탕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 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_

##7268011 + 통화 _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1,200원 | 60초 - 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_

##7270142 + 통화 _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세계 클래식 DVD의 선구자

Opus Arte의 블루레이(Blu-ray) 샘플러 2집



Opera Ballet & theatre Blu-ray Sampler

OA BD7077D

최고의 영상으로 만나보는 클래식의 명장면들

- 클래식 Blu-Ray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 OpusArte의 Blu-Ray Sampler 2집 (Opera, Ballet & Theatre) 을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돈조반니', 푸치니의 '라보엠', 홀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 등의 유명 오페라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들리브의 '실비아' 등의 유명 로맨틱 발레,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등 OpusArte의 최신 Blu-Ray 타이틀에서 엄선한 베스트 트랙들을 이 Sampler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록곡 ▶▶

- 01 헨델: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중 '이제 이집트의 땅에' / 02 들리브: 발레 <실비아> 중 '피치카토' / 03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그대 내게 매일 편지를' / 04 셰익스피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중 '이 천한 손이 그대의 성소를' / 05 페셀: 오페라 <디도와 아네아스> 중 '언덕과 계곡에 승리의 춤이' / 06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주인마님! 놀라셨나요?' / 07 헤롤드: 발레 <고집장이 딸> 중 '파니 엘슬러의 파 드 듀' / 08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미미를 소개하네' / 09 카발라: 오페라 <사랑에 빠진 헤라클레스> 중 '기타의 콘서트' / 10 페셀: 오페라 <요정의 여왕> 중 '보라, 밤이 여기에' / 11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중 '절반은 저리로 갔소' / 12 헨체: 발레 <온디네> 중 '흔들리는 춤' / 13 홀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판도마임' / 14 차이코프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중 '4막의 파 드 트로와'



표지사진
세상을 바꾸는 음악 '엘 시스템'

<아울로스뉴스> 2010년 9월호

통권 제 45호 발행 : 2010년 10월 4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